**On Point 2**

**Unit 1**

**Lesson 1 Caring about What Others Think**

**Paragraph 1**

Today, many self-help books claim to have the recipe for healthy, wealthy, and wise living; one of their most frequent suggestions is “be yourself.” As Roy T. Bennett’s *The Light in the Heart* advises, readers should “stop caring about what others think.” As with many cliches, there may be some wisdom behind Bennett’s advice. Certainly, worrying too much about others’ opinions can be stressful and leave us feeling doubtful and depressed, but have writers like Bennett considered the effects of everyone on earth ceasing to care about how they are perceived?

**Paragraph 2**

Emotions such as embarrassment and shame are usually the result of feeling as though we’ve made a mistake in the eyes of others—they don’t feel good, but they serve an important purpose. Imagine you are walking to the supermarket check-out. You are not paying attention and accidentally cut in front of someone in line. Another customer points out your mistake, and you head to the back of the line. How do you feel? Slightly embarrassed, maybe? This is because you have broken a social convention: these are the small, everyday codes and rules that we live by, and they are essential to the smooth running of societies.

**유닛 1**

**레슨 1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의 중요성**

**단락 1**오늘날,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건강하고, 부유하며, 현명한 삶의 비법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장 자주 하는 조언 중 하나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이다. 로이 T. 베넷의 *마음속의 빛*에서는 독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마라”고 조언한다. 많은 상투적 표현과 마찬가지로, 베넷의 조언에는 나름의 지혜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분명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리를 의구심과 우울감에 빠지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베넷 같은 작가들이, 만약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 쓰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고려해 보았을까?

**단락 2**

부끄러움과 수치심 같은 감정은 주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실수를 저지른 것 같을 때 느껴진다. 이러한 감정은 불쾌할 수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슈퍼마켓 계산대로 걸어가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줄을 서 있던 사람들 앞에 끼어들었다. 다른 고객이 그 실수를 지적하자 줄 맨 뒤로 가게 되었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느낄까? 약간 창피하지 않은가? 이는 당신이 사회적 관습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은 일상 규칙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따르는 것이며, 사회가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필수적이다.

**Paragraph 3**

Embarrassment and shame prove that humans instinctively care about what people think of them. But why should this be? Cutting in line would be helpful for us, right? Well, while emotions such as embarrassment help maintain a healthy society, many psychologists argue that humans actually developed them for self-preservation. Suppose we deviate from social conventions too often. In that case, we may soon find ourselves alone, without friends, and on the margins of our society—something we instinctively know would not benefit us as individuals.

**Paragraph 4**

Also, without these painfully memorable emotions, we are likely to repeat our mistakes. We can illustrate the personal learning value of embarrassment more clearly with another example. Let’s imagine you’ve now left the supermarket. You didn’t remember to bring a bag, so you are struggling to hold many loose apples, oranges, and bananas. Suddenly, you lose your grip, your precious fruit rolls all over the busy street, and you are left desperately chasing after it. If you are feeling embarrassed again, as might be expected, then subsequently, you’ll probably remember to bring a shopping bag to get your food home safely.

**단락 3**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왜 그럴까? 줄을 서지 않고 끼어드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 아닌가? 부끄러움과 같은 감정들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감정이 자기 보존을 위해 발전했다고 주장한다. 만약 우리가 사회적 규범을 지나치게 자주 어기게 된다면 곧 친구를 잃고 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런 상황이 개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단락 4**

또한 이러한 불쾌하게 기억에 남는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부끄러움이 개인의 학습 과정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이제 슈퍼마켓을 나왔고 가방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사과, 오렌지, 바나나를 손으로 들고 가다 갑자기 손에서 떨어트렸다. 귀중한 과일이 분주한 거리 위로 굴러가고, 당신은 필사적으로 그것을 쫓게 된다. 만약 이때 다시 창피함을 느낀다면 이후에는 식료품을 안전하게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가방을 가져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Paragraph 5**

“Not caring about what others think” suggests that whatever the situation, we should not change or adapt our personalities—instead, as the saying goes, we should “be true to ourselves.” In English, the idea of being “two-faced” is extremely negative and is used to describe people who are deceptive or false. Of course, most of us know it’s usually not healthy—or even helpful—to lie or consciously pretend to be someone else. However, is it such a bad thing to have more than one “face”? For example, most of us would naturally find ourselves talking very differently to our ten-year-old niece, eighty-year-old grandmother, boss, and best friend. The image we present around others functions as a sign that we are thinking about their expectations, and the adaptations we make are signs of empathy—they show that we have considered others’ thoughts, needs, and feelings.

**Paragraph 6**

In fact, there is a saying that we have *three* distinct faces: one for the world, one for our families, and one for ourselves. This seems quite realistic; however, it might also suggest that the last of these faces is the true or “real” one. Can we really say that we are most honestly ourselves when we are alone? Most psychologists argue that we are just as capable of lying to ourselves as we are to others, so perhaps it’s other people’s opinions of us that “keep us honest.”

**단락5**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성격을 바꾸거나 조정하지 말아야 하며, 대신 흔히 말하듯 "스스로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영어에서 "두 얼굴을 가진"이라는 개념은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되며, 기만적이거나 거짓된 사람들을 묘사하는 데 쓰인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자신을 꾸미는 것이 건강하지도, 유익하지도 않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는 것이 과연 그렇게 나쁜 일일까? 예를 들어, 우리는 대부분 열 살짜리 조카, 팔십 살 할머니, 상사,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와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매우 다르게 말하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보여주는 모습은 그들의 기대를 신경 쓰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에 따른 변화는 공감의 표현이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 필요, 감정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락 6**

사실, 세상에는 세 가지 뚜렷한 “얼굴”이 있다는 말이 있다. 하나는 세상에 보이는 얼굴, 하나는 가족들에게 보이는 얼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에게 보이는 얼굴이다. 이 말은 현실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세 번째 얼굴이 진짜 또는 “본연의” 모습이라고 암시하기도 한다. 과연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가장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많은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타인에게 거짓말하는 것만큼 자신에게도 쉽게 거짓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

**Paragraph 7**

As with many things in life, the truth probably lies somewhere in between. Worrying too much about how we are seen could be a waste of time—or even dangerous, especially if it is based on shallow judgments about what we wear or how we look. On the other hand, being concerned about how others view us as intelligent, emotional creatures is essential to our well-being and the success of our communities.

**단락 7**

인생의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으며—특히 옷차림이나 외모와 같은 피상적인 판단에 기반한 경우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반면에, 지적이고 감성적인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신경 쓰는 것은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Unit 1**

**Lesson 2 Don’t Go Along to Get Along**

**Paragraph 1**

There is one area of education that, to everyone’s disadvantage, is often forgotten: learning about the importance of personal autonomy, or making your own decisions, even if it means going against the crowd or being criticized by others. Of course, schools are not the best places to learn the value of individuality. They are places where being liked is extremely important, and deviating from the norm usually brings nothing but trouble. The idea of “going along to get along” may well be necessary for surviving school life, but here’s a piece of advice for soon-to-be graduates: do not carry it into the real world. Remaining true to yourself means leading a more sensible, rewarding, and moral life.

**Paragraph 2**

Autonomy protects you from making bad decisions. For example, a well-known concept in advertising and politics is the “bandwagon effect.” Ads often include “best-selling” and “number-one” because people like to buy brands that are already popular, even if an almost identical product is cheaper. Another example is that many voters tend to choose the most popular candidates in elections because they want to be on the winning team—which does not seem like the best way to decide on a leader.

**유닛 1**

**레슨 2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

**단락 1**

교육에서, 모두에게 불리하게도, 종종 잊히는 한 영역이 있다. 바로 개인적 자율성, 즉 자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는 것이다. 이는 군중에 반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상황이라도 자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학교는 개성의 가치를 배우기에 최적의 장소는 아니다. 학교는 호감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곳이며,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이 대부분 문제를 초래할 뿐이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 따라간다"는 사고방식은 학교생활을 무난히 넘기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한 가지 조언이 있다. 이 사고방식을 현실 세계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은 더 이성적이고, 보람차며, 도덕적인 삶으로 이어진다.

**단락 2**

자율성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아준다. 예를 들어, 광고와 정치에서 널리 알려진 개념 중 하나가 "편승 효과"이다. 광고에는 종종 "베스트셀러"나 "1위 상품"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비슷한 제품이 더 저렴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미 인기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는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가장 인기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승리하는 팀에 속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지도자를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Paragraph 3**

Personal autonomy does more than prevent foolish behavior. It is the key to a life rich in experiences and achievements. Fear of judgment by others must not prevent you from pursuing what you want, whether it is a relationship, a career goal, or a personal project. Teaching English to non-native speakers, I notice that many students shy away from speaking in class, despite sincerely wanting to improve their English. So, at the start of each class, I say a few words in the students’ native language. Sure enough, there are a few laughs at my pronunciation and broken grammar. Nonetheless, most students cannot help but notice that I fight on. Who’s sillier—the person who makes mistakes while working toward a goal or the person who achieves nothing due to fear?

**Paragraph 4**

Sometimes, excessive respect for authority, rather than fear of embarrassment, keeps you from remaining true to yourself. But part of being an autonomous person is to be able to disagree with powerful people when necessary. Twelve publishers rejected J. K. Rowling’s first Harry Potter novel before it was finally accepted. If she believed what the “experts” told her, she would not be one of the best-selling authors in history and one of the wealthiest women in the world. In addition, sometimes, the rewards for standing your ground against authority are much more substantial than success and fame. Martin Luther King, Jr. and Mahatma Gandhi challenged and angered those in power by maintaining their integrity, and in the process, they helped liberate millions of people.

**단락 3**

개인적 자율성은 어리석은 행동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더 풍부한 경험과 성취로 가득 찬 삶의 열쇠이다.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관계, 직업 목표, 또는 개인 프로젝트와 같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비원어민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나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말을 꺼리는 경우를 자주 발견한다. 하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어한다. 그래서 나는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학생들의 모국어로 몇 마디를 한다. 당연히 나의 발음과 서툰 문법에 몇몇 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린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가 계속해서 도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목표를 위해 실수를 감수하는 사람이 더 어리석을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아무런 성취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어리석을까?

**단락 4**

때로는 창피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과도한 존중이 스스로에게 충실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자율적인 사람이 되는 것의 일부는 필요할 때 권력자들에게 반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조앤 K. 롤링의 첫 번째 해리 포터 소설은 12개의 출판사에서 거절당한 후에야 비로소 출판되었다. 만약 그녀가 "전문가"들의 말을 믿었다면, 그녀는 역사상 가장 많은 책을 판매한 작가 중 한 명이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때로는 권위에 맞서는 대가가 성공과 명성을 넘어설 만큼 크기도 하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마하트마 간디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권력자들에게 도전했고 그들을 화나게 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수백만 명을 해방시키는 데 기여했다.

**Paragraph 5**

Autonomy also keeps us from falling prey to a “mob mentality.” This term refers to people’s often damaging and uncharacteristic behavior when they are part of an angry crowd. In August 2011, a peaceful protest turned into riots in London and several other UK cities. For a week, crowds of mostly young people broke windows, set fires, and stole from stores. Many of those who took part had previously been good citizens whose turn to crime seemed inconceivable—until it happened. People looked to psychology for insight, and while there is no definitive explanation, two theories were mentioned most. One is what psychologists call “deindividuation,” which seems to happen when a group considers itself under threat. Each individual’s identity becomes temporarily less important than their group identity, and the group’s values become their own for the moment—even if those values include violence. The other theory says that people in unfamiliar situations are unsure how to behave, so they look to others for clues. Both of these factors likely contributed to the UK riots and other cases of mass violence.

**Paragraph 6**

For many people, fitting in might seem like the smart move. But doing so will only hold you back from your true potential. If you refuse to let ridicule hurt you, to let the powerful threaten your beliefs, or to mindlessly copy others, your life will be better in ways large and small.

**단락 5**

자율성은 또한 "군중 심리"에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 이 용어는 분노한 군중 속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파괴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2011년 8월, 영국 런던과 다른 여러 도시에서 평화적 시위가 폭동으로 변했다. 약 일주일 동안 대부분 젊은이들로 구성된 군중이 유리창을 부수고, 불을 지르고, 상점에서 물건을 훔쳤다. 폭동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은 이전에는 성실한 시민으로서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에서 통찰을 구했고, 명확한 설명은 없었지만 두 가지 이론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하나는 심리학자들이 "탈개인화"라고 부르는 개념으로, 이는 집단이 자신을 위협받는다고 여길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일시적으로 덜 중요해지고, 집단의 가치가 순간적으로 개인의 가치가 된다—심지어 그 가치가 폭력을 포함하더라도. 또 다른 이론은 사람들이 낯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를 때 주변 사람들을 보고 행동 방식을 배운다는 것이다. 이 두 요인은 영국 폭동과 다른 집단 폭력 사건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단락 6**

많은 사람들에게 남들과 어울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억누를 뿐이다. 만약 당신이 조롱에 상처받지 않고, 권력자에게 위협받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따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크고 작은 다양한 방식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Unit 2**

**Lesson 1 Sport or Art?**

**Paragraph 1**

It’s easy to understand why women’s figure skating is the most popular Olympic event. Athletes perform amazing jumps and spins, accompanied by thrilling music. But a predictable debate happens every four years among sports fans. Some aren’t happy about including figure skating in the Olympics because they believe it’s more of an art than a “real” sport.

**Paragraph 2**

This view rests on the fact that figure skaters receive two different scores from a panel of judges. The technical score is based on the difficulty of the routine and whether the skater performed certain required moves correctly. The program components score depends on more subjective factors, including choreography and “interpretation of music.” That second score is the part that critics have a problem with. In 2018, a sports reporter named Edward Egros started an online argument when he tweeted that figure skating is “too subjective” and lacks “quantifiable metrics to determine a winner.” Other users pointed out that scores are, in fact, quantified precisely. But Egros was not convinced. According to him, figure skating requires impressive skills, but it’s not a sport. He is mistaken, however. What he and other critics of Olympic figure skating are missing is the fact that the domains of sports and art overlap a great deal.

**유닛 2**

**레슨1 스포츠인가, 예술인가?**

**단락 1**

여자 피겨스케이팅이 올림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선수들은 놀라운 점프와 스핀을 선보이며 흥미진진한 음악에 맞춰 연기한다. 하지만 스포츠 팬들 사이에서는 4년마다 어김없이 논쟁이 벌어진다. 피겨스케이팅이 "진짜" 스포츠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깝다며 올림픽 종목에 포함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단락 2**

이러한 시각은 피겨스케이팅 심판이 두 가지 다른 점수를 부여한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술 점수는 연기의 난이도와 특정 필수 동작을 정확히 수행했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프로그램 구성 점수는 안무와 “음악 해석” 같은 보다 주관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비판자들이 문제 삼는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점수다. 2018년, 스포츠 기자 에드워드 에그로스는 피겨스케이팅이 "너무 주관적"이며 "우승자를 정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이 없다"고 트윗하며 온라인 논쟁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다른 사용자들은 점수가 실제로 정밀하게 수치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에그로스는 설득되지 않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피겨스케이팅은 인상적인 기술을 요구하지만 스포츠는 아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이다. 피겨스케이팅을 비판하는 에그로스와 다른 이들이 간과한 사실은 스포츠와 예술의 영역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이다.

**Paragraph 3**

Take skateboarding, for example, which became an Olympic event for the first time in 2021. Participants are judged on a scale ranging from zero to ten. The criteria include not only difficulty and speed but also timing and originality. Skateboarders value the creative elements of the sport so much that many had mixed feelings about it being added to the Games. Ian Michna, a skateboard magazine publisher, explained to NBC News, “I think as a community, people were attracted to skateboarding because it was not part of something like the Olympics. . . . It was more of an artistic activity you could do on your own.” But even stars like Tony Hawk have changed their minds on this point. Hawk used to oppose the “sportification” of skateboarding, but he agreed to report on the event for a US TV channel, saying that he hoped more people around the world would be encouraged to take up the sport he loves.

**단락 3**

예를 들어, 2021년 처음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스케이트보드를 보자. 참가자들은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로 평가받는다. 평가 기준은 난이도와 속도뿐만 아니라 타이밍과 독창성도 포함된다. 스케이트보드 선수들은 이 스포츠의 창의적 요소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스케이트보드 잡지 발행인 이안 미크나는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케이트보드 커뮤니티는 올림픽 같은 것의 일부가 아닌 점에 매력을 느껴왔다고 생각합니다. . . . 스케이트보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더 예술적인 활동이었죠.” 하지만 토니 호크 같은 스타들도 이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호크는 과거 스케이트보드의 "스포츠화"에 반대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미국 TV 채널의 해설자로 참여하며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 스포츠를 접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aragraph 4**

The great Brazilian soccer player Pele famously called his sport *o jogo bonito*, or “the beautiful game.” There are various ways to interpret this phrase. Soccer players’ athleticism can be amazing to watch; for example, Ronaldinho, another Brazilian star, became famous for his dance-like footwork. Or maybe Pele was referring to soccer’s ability to surprise—anything can happen at any time. Another beautiful part of the game, as one sportswriter pointed out, is how it makes fans all over the world feel like they are a part of something: “When they go to a match and add their voice to the thousands already chanting, they feel they are making a difference.”

**단락 4**

위대한 브라질 축구 선수 펠레는 축구를 "오 조고 보니토," 즉 "아름다운 게임"이라고 부르며 유명해졌다. 이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축구 선수들의 신체 능력은 경이로울 정도로 볼만하다. 예를 들어, 또 다른 브라질 스타인 호나우지뉴는 춤을 추는 듯한 발재간으로 유명해졌다. 또는 펠레가 축구의 예측 불가능성과 놀라움을 언급했을 수도 있다—어떤 일이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한 스포츠 기자가 지적했듯이, 경기의 또 다른 아름다운 점은 전 세계 팬들에게 자신이 무언가의 일부라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팬들은 경기에 참여해 수천 명의 함성에 자신의 목소리를 더할 때,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Paragraph 5**

All sports—even those that judges don’t score—include some subjective or arbitrary factors. A tennis umpire might make the wrong call. A loud fan might distract a golfer during a crucial shot. A million chance events can affect the results. Near the end of the final game of the 2016 baseball World Series, the Chicago Cubs were winning by two runs and feeling confident when the other team suddenly tied the score with a home run. Then it began to rain, and the game had to stop temporarily. Thanks to this pause, a respected older Cubs player had time to address his teammates—some of whom were crying—with an inspiring speech about teamwork and determination. The Cubs went on to score two more runs and become champions. Afterward, players told reporters that their leader’s well-chosen words helped ensure their victory.

**Paragraph 6**

In summation, it isn’t true that emotions and aesthetics are outside the scope of sports. If you ever wonder whether figure skating should be categorized as a sport or an art form, that’s something to consider. All sports *are* art forms. They don’t just require training and skill; they also appeal to our sense of beauty and inspiration.

**단락 5**

심판이 점수를 매기지 않는 스포츠조차도 일부 주관적이거나 임의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테니스 심판이 잘못된 판정을 내릴 수도 있고, 골프 경기에서 열광적인 팬이 중요한 순간에 선수의 집중을 방해할 수도 있다. 수많은 우연한 사건들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6년 월드 시리즈 야구 결승전 마지막 경기에서 시카고 컵스는 두 점 앞서며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상대 팀이 갑작스러운 홈런으로 점수를 동점으로 만들었다. 이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경기가 일시 중단되었다. 이 휴식 시간 덕분에 존경받는 베테랑 컵스 선수가 눈물을 흘리고 있던 몇몇 팀 동료들에게 팀워크와 결단력에 대한 감동적인 연설을 할 기회를 가졌다. 컵스는 이후 두 점을 더 득점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 후, 선수들은 리더의 적절한 말이 승리를 확신하게 해주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단락 6**

결론적으로, 감정과 미학이 스포츠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만약 피겨스케이팅이 스포츠인지 아니면 예술 형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고민된다면, 한 가지를 고려해보라. 모든 스포츠는 예술 형식이다. 스포츠는 훈련과 기술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적 감각과 영감을 자극하기도 한다.

**Unit 2**

**Lesson 2 For Fame and Fortune?**

**Paragraph 1**

Growing up, many children and teenagers dream of becoming sports stars. They are drawn not only to the fame but also to the fortune that goes along with it, as they see their favorite football players or basketball stars on TV driving the latest cars and living in the most magnificent houses. Therefore, many young people are willing to spend both time and their parents’ money chasing a career in sports. But what are the chances of sports success? And once an up-and-coming young athlete has attained pro status, how much financial reward is really going to come their way?

**유닛 2**

**레슨 2 스포츠 스타의 꿈, 현실과 마주하다**

**단락 1**

어릴 때부터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스포츠 스타가 되는 꿈을 꾼다. 그들은 명예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부에도 끌린다. TV에서 좋아하는 축구 선수나 농구 스타가 최신 자동차를 몰고 다니며 웅장한 집에 사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젊은이가 스포츠 경력을 쌓기 위해 시간과 부모의 돈을 기꺼이 투자한다. 그러나 스포츠에서 성공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떠오르는 젊은 선수가 프로 지위를 얻은 후, 얼마나 많은 금전적 보상이 주어질까?

**Paragraph 2**

For those young people who resolve to achieve sports stardom, the investment starts early. The route to success requires young athletes to train daily and follow a healthy diet. This often means having to turn down invitations to parties and trips to fast-food restaurants with friends, so many sacrifice their social lives completely. Such sporting aspirations can also be very expensive.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in *USA Today*, twenty percent of US families have a youth sports budget exceeding $12,000 a year per child. Spending includes buying expensive equipment, covering travel expenses, and paying for sports camps. And the costs don’t stop when a child reaches adulthood. Many suffer from “forced amateurism,” in which sports leagues in the US, in practice, force young people to go to college before they can go pro and start getting paid. Although many of these promising young athletes receive college scholarships based on their abilities, many of their day-to-day expenses fall on their families.

**단락 2**

스포츠 스타가 되기로 결심한 젊은이들에게 투자는 일찍 시작된다. 성공의 길은 매일 훈련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야 하며, 종종 친구들과 파티에 가거나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하는 초대를 거절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사회생활을 완전히 포기한다. 이러한 스포츠에 대한 열망은 비용 면에서도 매우 부담스럽다. *USA 투데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20%가 한 자녀당 연간 12,000달러 이상을 유소년 스포츠에 투자하고 있다. 이 비용에는 비싼 장비 구입, 여행 경비, 스포츠 캠프 비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용은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끝나지 않는다. 많은 젊은이가 프로로 전향해 급여를 받기 전까지 미국의 스포츠 리그는 사실상 대학에 다닐 것을 강요하는 "강제 아마추어리즘"을 겪는다. 물론 많은 유망한 젊은 선수들이 실력에 따라 대학 장학금을 받지만, 일상적인 비용은 여전히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

**Paragraph 3**

Even those that make it through college on a sports scholarship often find they have a rough road ahead. For example, the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NCAA), an organization that helps facilitate scholarships, has over 450,000 athletes. Of these, only around 4,000 will ever become professional players in the four major US sports leagues: the NFL, NBA, MLB, and NHL. For those that do get drafted, the yearly salary is, of course, huge. Hockey players in the NHL get a minimum of $750,000 annually, while football players in the NFL make at least $660,000. But considering that an average athletic career lasts just five years, those numbers don’t seem so unreasonable. Many athletes find themselves out of work completely once they retire, and this issue can be compounded by injury and a lack of experience in other areas. Retired pros may find themselves either physically unable or lacking the skills necessary to go into other lines of work.

**단락 3**

스포츠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졸업한 선수들조차 험난한 길을 마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관인 전미 대학 체육 협회에는 45만 명 이상의 선수가 소속되어 있다. 이들 중 오직 약 4,000명만이 미식축구(NFL), 농구(NBA), 야구(MLB), 아이스하키(NHL) 등 미국의 4대 스포츠 리그에서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다. 프로로 드래프트된 선수들은 연봉이 물론 크다. NHL의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연간 최소 75만 달러를 받고, NFL의 미식축구 선수들은 최소 66만 달러를 번다. 하지만 평균적인 선수 경력이 단 5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숫자들이 그리 과하지 않다. 많은 선수는 은퇴 후 완전히 실직 상태에 놓이며, 이 문제는 부상이나 다른 분야에서의 경험 부족으로 더욱 악화된다. 은퇴한 프로 선수들은 신체적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필요한 기술이 부족해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Paragraph 4**

The financial risk associated with pursuing a professional sports career is more notable in sports such as track and field, swimming, and gymnastics. Many of these athletes rely on prize money from competitions to make a living. Such prizes can be generous; for example, competitors in the TYR Pro Swim Series can expect to receive $1,500 for each race they win, while second- and third-place finishers can win $1,000 and $500, respectively. However, a long gap between wins can leave athletes financially unstable. This is a particular problem when events are canceled unexpectedly, as was the case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COVID-19 pandemic. Many athletes found themselves without a way to earn money and, as they were classified as self-employed, received littl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Sarah Hirshland, CEO of the US Olympic and Paralympic Committee, called these athletes “classic gig workers” because, while their work was potentially lucrative during good times, it left athletes financially vulnerable during bad times.

**단락 4**

전문 스포츠 경력에 따르는 재정적 위험은 육상, 수영, 체조 같은 종목에서 더 두드러진다. 이들 종목의 선수들은 대회에서 상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금은 후한 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TYR 프로 수영 시리즈의 참가자는 한 경주에서 우승할 경우 1,50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2위와 3위에게는 각각 1,000달러와 500달러가 주어진다. 하지만 승리 사이의 긴 공백은 선수들을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특히 COVID-19 팬데믹 초기와 같이 대회가 갑작스럽게 취소될 때 심각한 문제가 된다. 많은 선수들이 수입원을 잃었고, 자영업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미국 올림픽·패럴림픽 위원회의 CEO인 사라 허시랜드는 이들을 "전형적인 긱 노동자"라고 부르며, 경기가 잘 풀릴 때는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있지만, 어려운 시기에는 재정적으로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Paragraph 5**

For the vast majority who don’t find success in professional sports, the risks are even higher. Many young people who have spent their years at school and university tirelessly training will have had little time left for their studies. This can leave them underqualified for the world of work they will one day find themselves in.

**Paragraph 6**

Sports can certainly be great for individuals, allowing them to test their limits and win applause for brilliant performances. And for those looking to become sports stars, it seems clear that this should be the driving force, not profit.

**단락 5**

프로 스포츠에서 성공하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위험이 훨씬 크다. 학교와 대학 시절 내내 훈련에 매진했던 많은 젊은이는 학업에 투자할 시간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는 결국 그들이 언젠가 뛰어들게 될 직업 세계에서 자격 미달 상태에 놓이게 할 수 있다.

**단락 6**

스포츠는 개인에게 한계를 시험하고 멋진 성과로 박수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 스타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명확해 보인다. 이 꿈의 원동력은 수익이 아니라 스포츠 그 자체에 대한 열정이어야 한다.

**Unit 3**

**Lesson 1 I Want to Be a Content Creator**

**Paragraph 1**

In 2021, 1,000 children in the US were asked what they would like to be when they grew up. In the past, sports star, pop star, and astronaut were the most common answers, but this is no longer the case. While these occupations still feature significantly—along with the perhaps more realistic teacher—YouTube creator or influencer now has a clear lead, with twenty-nine percent of children naming this as their number-one ambition.

**Paragraph 2**

These findings are perhaps not surprising; successful YouTubers like PewDiePie are now earning as much as $160,000 a day, and financial rewards are not the only attraction. Social media measures popularity: it gives creators precise numbers that tell them exactly how popular—or famous—they are. To date, PewDiePie has accumulated 110 million followers, and top TikToker Charli D’Amelio, having made an estimated $4 million by the age of 16, has been sent 8.6 billion “hearts.” It seems that the incentives for being a creator are endless.

**유닛 3**

**레슨 1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꿈꾸다**

**단락 1**

2021년, 미국에서 1,000명의 어린이들에게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었다. 과거에는 스포츠 스타, 팝스타, 우주비행사가 가장 흔한 답변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 직업들이 여전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더 현실적인 교사라는 직업도 포함되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가 29%라는 높은 응답률로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자리 잡았다.

**단락 2**

이 결과는 놀랍지 않을지도 모른다. 성공한 유튜버인 퓨디파이는 하루에 16만 달러를 벌고 있으며, 금전적 보상만이 매력인 것은 아니다. 소셜미디어는 인기와 명성을 정확한 숫자로 보여준다. 현재 퓨디파이는 1억 1천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틱톡 스타 찰리 디아멜리오는 16세의 나이에 약 400만 달러를 벌었으며, 86억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콘텐츠 제작자가 되는 것은 끝없는 보상이 기다리는 일처럼 보인다.

**Paragraph 3**

However, as with many supposedly desirable jobs, the reality may not match the illusion. Just as successful sports stars endure tough early-morning training sessions and pop stars find themselves on endless, tiring flights, creators often spend hours sitting alone in front of a camera, repeating the same activities again and again. And while they always seem positive and energetic,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appearing to be happy is their job. As creator Sinem Gunel put it, “If content creation is your job, you need to get it done even if you don’t feel like doing it.”

**Paragraph 4**

So, although we feel we know the stars we follow, a large part of being a social media creator is hiding your real feelings, which can come at an emotional cost. Many creators—including PewDiePie—have announced plans to take a break from social media, reporting underlying mental health issues. However, taking a break is not always possible because even a short one can see a creator’s numbers fall dramatically. In the world of social media, people move on quickly. Stuck in this trap, Lilly Singh—a YouTuber who once went by the name Superwoman—found herself exhausted, “lying on the kitchen floor and just crying . . . I turned into such a machine,” Singh explained. “I was feeling that I was completely losing what it means to be human.”

**단락 3**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은 환상과 다를 수 있다. 성공한 스포츠 스타가 이른 새벽 훈련을 견디고 팝스타가 끝없는 지치게 하는 비행을 감내하는 것처럼, 크리에이터들도 카메라 앞에서 홀로 몇 시간을 보내며 똑같은 활동을 반복해야 한다. 그들이 항상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쳐 보이지만, 행복해 보이는 것이 그들의 직업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크리에이터 시넴 구넬은 이렇게 말했다. “콘텐츠 제작이 직업이라면, 하고 싶지 않은 날에도 해야 합니다.”

**단락 4**

우리가 팔로우하는 스타들을 잘 알고 있다고 느끼지만, 소셜미디어 크리에이터의 큰 부분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는 데 있다. 이는 감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퓨디파이를 포함한 많은 크리에이터들은 정신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소셜미디어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짧은 휴식조차도 크리에이터의 숫자가 급감할 수 있어 쉬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소셜미디어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빠르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이 함정에 갇힌 유튜버 릴리 싱(Lilly Singh)—한때 슈퍼우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은 “주방 바닥에 누워 울고 있었다 . . . 내가 완전히 기계가 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싱은 “나는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Paragraph 5**

Other creators achieve fame by actively revealing their secrets and allowing followers total access to their lives. Fifteen-year-old YouTuber Lev Cameron recently asked his 1.5 million followers, “Have you ever wanted to control my life?” before adding, “Now is your chance.” Cameron’s followers regularly vote on how he should spend his time and whom he should date, and Cameron follows their instructions to the letter. Corporate sponsors also control what creators do and say—they pay influencers to promote their products and services—so while social-media creators may seem to “be their own bosses,” this is rarely true.

**Paragraph 6**

In fact, for many social-media creators, it seems everything is for sale; they themselves become commodities. Their content often includes family members and personal relationships, which can suffer as a result. This high level of exposure also leaves creators and their families at high risk of online abuse and cyberbullying, something that many—especially those who become famous overnight—do not anticipate.

**단락 5**

또 다른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고 팔로워들에게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공개하며 명성을 얻는다. 15세 유튜버 레브 카메론은 최근 150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제 삶을 통제해 보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라고 물으며 “지금이 기회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카메론의 팔로워들은 그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누구와 데이트할지를 정기적으로 투표하고, 카메론은 그 지시에 철저히 따른다. 기업 후원사 또한 크리에이터가 무엇을 하고 말해야 할지 통제한다. 후원사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도록 인플루언서들에게 돈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자기 스스로의 보스”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단락 6**

실제로 많은 소셜미디어 크리에이터들에게 모든 것이 판매 가능해 보인다. 그들 자신이 상품이 되며, 그들의 콘텐츠에는 종종 가족과 개인적 관계가 포함되어 이런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노출은 크리에이터와 그 가족이 온라인 학대와 사이버 괴롭힘에 쉽게 노출시킨다. 특히, 하룻밤 사이에 유명해진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을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Paragraph 7**

The pressures of being a social-media creator can sometimes have tragic consequences. Over the past few years, there have been several deaths among young creators. Etika, a popular US gaming YouTuber, took his own life in 2019. Speaking shortly before his death, Etika said: “Let my story be one that advises caution on too much social media . . . Unfortunately, it consumed me . . . I was so consumed with this great image that I thought I was invulnerable.”

**Paragraph 8**

Like sports and music, social media will remain a hobby for most young people, and for many, it is a place where they can make friends and grow in confidence. But when hobbies turn into jobs, things change. Fame is the primary aim for many social-media creators, and as Marilyn Monroe once said, “Fame doesn’t fulfill you. It warms you a bit, but that warmth is temporary.”

**단락 7**

소셜미디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받는 압박감은 때로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젊은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여러 죽음이 발생했다. 인기 미국 게이밍 유튜버 에티카는 2019년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죽기 직전, 에티카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이야기가 소셜미디어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에 주의를 주는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 . . 불행히도, 소셜미디어가 나를 집어삼켰습니다. . . . 나는 이 거대한 이미지를 유지하려다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내가 무적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단락 8**

스포츠나 음악처럼, 소셜미디어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에게 취미로 남을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는 친구를 사귀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취미가 직업이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명성은 많은 소셜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의 주된 목표이지만, 마릴린 먼로가 한때 말했듯이, “명성은 당신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약간의 따뜻함을 주지만, 그 따뜻함은 일시적입니다.”

**Unit 3**

**Lesson 2 Media Coverage of Stars**

**Paragraph 1**

On July 19, 2013, at the Los Angeles International Airport, musical artist Kanye West and celebrity photographer Daniel Ramos got into a physical argument. Like most paparazzi, Ramos makes money by taking candid photographs of celebrities. After Ramos asked Kanye why he refused to talk with him, the star attacked the photographer in an attempt to take his camera. Although extreme, the situation between West and Ramos is not uncommon in Hollywood; in fact, many celebrities have been caught on camera attacking persistent photographers. Many more have complained about the lack of privacy.

**Paragraph 2**

But do celebrities really have any right to complain? I would argue that a lack of privacy is the price celebrities pay for their fame and fortune. Far from hurting anyone, the attention that celebrities get from the media helps their careers and creates benefits for society beyond simple entertainment.

**유닛 3**

**레슨 2 스타와 미디어의 관계**

**단락 1**

2013년 7월 19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뮤지션 칸예 웨스트와 연예 사진작가 다니엘 라모스 간의 충돌이 벌어졌다. 라모스는 다른 파파라치들처럼 유명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촬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사진작가였다. 라모스가 칸예에게 왜 자신과 대화를 거부하느냐고 묻자, 웨스트는 라모스의 카메라를 빼앗으려 하다가 그를 폭행했다. 이 사건은 극단적인 사례로 보일 수 있지만, 할리우드에서는 자주 발생한다. 실제로 많은 유명인들이 집요한 사진작가와 대치하거나 충돌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힌 바 있다. 더 많은 유명인들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단락 2**

하지만 유명인들이 정말로 불평할 자격이 있을까? 필자는 사생활의 부족이야말로 유명인들이 명성과 부를 얻기 위해 감수해야 할 대가라고 생각한다. 미디어의 관심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이는 유명인의 경력을 돕고,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적 이익을 창출한다.

**Paragraph 3**

Many new and relatively unknown stars find it difficult to get into the limelight;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for more established celebrities, whose every move is documented by paparazzi. Through a mutually beneficial cycle, the prying media and the sometimes camera-shy celebrities help each other. Free press exposure is so important to a celebrity’s chances of staying relevant in the entertainment business that certain celebrities’ careers could collapse entirely if not for the media attention that they receive by just going about their daily lives.

**Paragraph 4**

So let’s look for a moment at exactly what the media and, in particular, the paparazzi are up to here. In effect, they’re doing nothing more than creating buzz. Of course, many would argue that the paparazzi do this for entirely selfish reasons, as a provocative photo of an A-list celebrity can net the photographer an impressive sum of money. According to the *Sydney Morning Herald,* photographer Jamie Fawcett took home $250,000 for a single candid photo of Brad Pitt and Angelina Jolie vacationing in Namibia. Yes, $250,000!

**단락 3**

많은 신인 혹은 덜 알려진 스타들은 주목받기가 어렵다. 반면, 유명한 스타들은 파파라치에 의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된다. 미디어의 끈질긴 관심과 종종 카메라를 피하려는 유명인들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이익 관계를 형성한다.. 무료 언론 노출은 연예계에서 유명인으로 살아남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일부 유명인들은 일상적인 생활만으로도 받은 미디어 주목이 사라지면 경력이 붕괴될 수도 있다.

**단락 4**

그렇다면 미디어, 특히 파파라치가 하는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결국 그들은 단지 화제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다. 물론, 많은 이들은 파파라치가 순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 이런 일을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A급 스타의 자극적인 사진 한 장이 사진작가에게 엄청난 수입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사진작가 제이미 포셋은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나미비아에서 휴가를 즐기던 모습을 찍은 사진 한 장으로 25만 달러를 벌었다. 그렇다, 25만 달러!

**Paragraph 5**

It’s easy to see why celebs are upset at paparazzi who profit by exploiting their images without permission. Or is it? This buzz does much more than just fill a photographer’s pockets. It also generates interest in the stars. Many fans have a natural curiosity about the personal lives of their favorite celebrities. And it’s the paparazzi who give the public a look into those celebrities’ lives, thereby satisfying and increasing that curiosity. Furthermore, this heightened interest is what packs movie theaters the world over, which can be a very good thing indeed for a star. After all, higher box-office sales fuel stars’ careers and make them wealthy in the process. This is why some fame-hungry celebrities are even known to coordinate with the paparazzi to arrange “accidental” encounters.

**단락 5**

유명인들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이용해 돈을 버는 파파라치에 대해 스타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이러한 관심은 단지 사진작가의 주머니만 채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스타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많은 팬들은 좋아하는 유명인들의 사생활에 대해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파파라치들이 대중에게 그 유명인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어, 그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증가시킨다. 더욱이, 이렇게 높아진 관심이 전 세계의 영화관을 가득 채우는데, 이는 스타에게 매우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결국, 더 높은 박스오피스 매출은 스타들의 경력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을 부유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일부 명성에 굶주린 유명인들이 "우연한"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파파라치와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유다.

**Paragraph 6**

So the benefits of publicity exceed the costs for those on both sides of the camera lens. But there’s another often-overlooked beneficiary: society. Everyday people wishing to make a statement must go to great lengths to gain even the smallest amount of attention. The media, however, give celebrities a substantial advantage when they want their voices heard. Famous people who wish to offer their input on important causes already have a microphone set up for them. By utilizing media platforms, celebrities like Kim Kardashian and Leonardo DiCaprio can use their fame to support charities such as the Humane Society and the World Wide Fund for Nature. The singer Beyonce and the actor George Clooney are well-known for their support of disaster relief charities such as the Red Cross and Habitat for Humanity. Celebrities have the ability to draw attention to causes that the public might not otherwise hear about. It’s not wrong, then, to say that society profits from the buzz created by celebrities.

**Paragraph 7**

Sure, the constant media attention may be annoying. But when compared to other occupational hazards, it’s relatively harmless. It drives celebrities’ careers and even gives society a boost. So, if anything, celebrities should be grateful to be getting such attention. Kanye West may think that he doesn’t want the cameras following him around every time he leaves his house, but the day the cameras stop showing up may be the day his career comes to a close.

**단락 6**

따라서 미디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카메라 렌즈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한다. 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또 다른 수혜자가 있다: 바로 사회이다.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은 아주 작은 관심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은 유명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 중요한 대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유명인들에게는 이미 마이크가 마련되어 있다. 킴 카다시안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유명인들은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동물보호단체, 세계자연기금과 같은 자선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비욘세와 조지 클루니는 적십자사와 해비타트 같은 재난구호 자선단체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명인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 문제에 주목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가 유명인들이 만들어내는 화제로부터 이익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단락 7**

끊임없는 미디어의 주목이 성가실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직업적 위험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무해하다. 이는 유명인의 경력을 추진하고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유명인들은 이런 주목에 감사할 필요가 있다. 칸예 웨스트는 집을 나설 때마다 카메라가 따라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카메라가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 날이 그의 경력이 끝나는 날일지도 모른다.

**Unit 4**

**Lesson 1 Learning By Living**

**Paragraph 1**

The behavioral model of raising children uses natural first-hand experiences and the psychology of children to help them learn and develop. For some, this may suggest a more “hands-off” version of being a parent, and while it is not always the right choice, there are many benefits to this parenting framework.

**Paragraph 2**

Behavioral parenting uses reinforcement theory to influence children’s behavior. There are four main types of reinforcement. The first two are positive and negative. Positive reinforcement involves rewarding good behavior to encourage it; a simple example might be that if a child eats their vegetables, they will be allowed some ice cream. On the other hand, negative reinforcement means removing an unpopular rule when good behavior occurs; for example, a child may be allowed to stay up past their usual bedtime if they are particularly well behaved.

**유닛 4**

**레슨 1 삶을 통해 배우는 법**

**단락 1**

행동주의 양육 모델은 자연스러운 직접 경험과 아동 심리를 활용하여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는다. 어떤 이들에게 이 모델은 보다 “간섭하지 않는” 부모 역할을 의미할 수 있다. 이 방법이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니지만, 이 양육 방식이 가지는 많은 이점이 있다.

**단락 2**

행동주의 양육은 강화 이론을 사용하여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강화에는 네 가지 주요 유형이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이다. 긍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에 보상을 주어 이를 장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채소를 먹으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사례가 있다. 반면, 부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이 있을 때 불편한 규칙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했을 때 평소보다 늦게까지 깨어 있게 허락하는 경우가 있다.

**Paragraph 3**

Supporters of a more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argue that these forms of reinforcement do not teach discipline and that children should learn to do things simply “because I say so” and not because it benefits them in some way. While it is true that adults cannot always expect to be rewarded when they do the “right thing,” children are not adults, and if reinforcement is used well, the process is both logical and effective. However, if a reward becomes an expectation, it loses all impact. Thus, permissive parents cannot expect their children to respond to positive and negative reinforcement consistently.

**Paragraph 4**

The third type of reinforcement is extinction, which involves removing reinforcement of behavior that has previously been reinforced. This can be clearly illustrated when a child repeatedly drops a toy, knowing that a parent will pick it up. Advocates of extinction would argue that the child learns an important lesson when their parent walks away and leaves the toy on the floor. Similarly, the Ferber method is used by some parents early in their children’s lives to get them to adjust to a healthy sleep pattern. The technique was first developed by Richard Ferber of the Boston Children’s Hospital, and it involves ignoring children’s crying or calls for attention for precise periods.

**단락 3**

보다 권위적인 양육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형태의 강화가 규율을 가르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아이들은 단순히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한다고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인이 “옳은 일”을 했을 때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아이는 성인이 아니다. 적절히 강화가 사용된다면 이 과정은 논리적이면서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보상이 기대감으로 변하면 그 효과는 사라진다. 따라서, 관대한 부모는 긍정적 및 부정적 강화에 아이가 지속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단락 4**

강화의 세 번째 유형은 소거이다. 이는 이전에 강화되었던 행동에 대한 강화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부모가 장난감을 집어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장난감을 반복적으로 떨어뜨릴 때, 부모가 장난감을 그대로 바닥에 두고 자리를 떠나면, 아이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는 주장이 있다. 비슷하게, 일부 부모는 아이들이 건강한 수면 패턴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아이의 생애 초기에 페르버 방법을 사용한다. 이 기술은 보스턴 어린이병원의 리처드 페르버가 개발했으며, 정해진 시간 동안 아이의 울음이나 관심 요구를 무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Paragraph 5**

However, critics suggest that this practice is unhealthy because it inherently reduces a child’s trust in their parents. They often refer to it as the “cry-it-out” method. This name is misleading, though, as it does not involve leaving the child until they stop crying. Opponents also say that it causes children unnecessary stress. However, even the most attentive parents must accept that their child will cry; at least with the Ferber method, children can be expected to develop an ability to sleep without being held. This early independence will serve them well in later life.

**Paragraph 6**

The final form of reinforcement is punishment. This is something we are all familiar with, although it has changed in form over the years. Up until the nineteenth century, for example, children could expect—whether at home or school—to be physically punished when they were naughty. To modern ears, this presents a problem, as corporal punishment may create a cycle of violence. However, expressing anger on occasion can be a natural deterrent to misdemeanors like stealing, and it teaches children that these things are widely considered wrong. Being authoritative can also help keep our children safe; most of us can remember being shouted at for running into the street or playing with matches.

**단락 5**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 관행이 본질적으로 아이의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다고 제안한다. 그들은 종종 이를 "울음 방치" 방법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명칭으로, 이 방식은 아이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론자들은 또한 이것이 아이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장 세심한 부모조차도 아이의 울음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하며, 페르버 방법을 통해 아이는 안겨 있지 않아도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러한 초기 독립성은 후에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단락 6**

강화의 마지막 형태는 처벌이다. 이 개념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형태는 변화했다. 예를 들어, 19세기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집이나 학교에서 잘못했을 경우 신체적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현대인에게 이러한 방식은 체벌이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하지만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때로 도둑질과 같은 비행을 억제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들이 잘못되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권위적인 태도는 아이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로로 뛰어들거나 성냥을 가지고 놀 때 부모에게 꾸중을 들었던 경험을 기억할 것이다.

**Paragraph 7**

Whether they realize it or not, all parents make some use of reinforcement. What is perhaps of greater significance is the way in which it is used and how often. Every child is different, and the 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what children want and what they need is an ongoing battle, one that none of us can expect to get right all the time. Behavioral models of parenting may not be perfect, but their flexibility provides parents with more realistic and instructive options than many rigid and authoritarian models.

**단락 7**

부모가 인식하든 못하든, 모든 부모는 어느 정도의 강화를 사용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가 하는 점이다. 모든 아이는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하는 일은 끝없는 도전이며, 이를 항상 정확히 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행동주의 양육 모델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유연성은 많은 엄격하고 권위적인 모델들보다 더 현실적이고 교육적인 선택지를 부모에게 제공한다.

**Unit 4**

**Lesson 2 Modern Intensive Parenting**

**Paragraph 1**

Parenting has always led to theory and debate; a brief look through history will show that various styles have been popular or fashionable, only to be replaced with new and apparently definitive models. While they differ from each other, what many of today’s parenting models have in common is that they are highly intensive.

**Paragraph 2**

One such model is “tiger parenting,” a term made familiar by Amy Chua, author of *The Battle Hymn of the Tiger Mother*. In her book, Chua, a law professor at Yale University, describes how she raised her daughters in what she called “the Chinese way.” They were not allowed to play video games, watch television, play with friends, or even take bathroom breaks—so that they could focus on studying. Certainly, in Chua’s terms, her strict methods seem to have worked: her daughters both graduated from Harvard University.

**유닛 4**

**레슨 2 현대의 과도한 양육**

**단락 1**

양육은 항상 이론과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특정 스타일이 인기를 끌거나 유행하다가 새로운, 명확해 보이는 모델로 대체되는 사례가 발견된다. 오늘날의 다양한 양육 모델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매우 강도 높은 양육 방식을 지향한다는 특징이 있다.

**단락 2**

이런 모델 중 하나가 “호랑이 엄마 양육법”이다. 이 용어는 에이미 추아의 저서 *호랑이 엄마의 전투 찬가*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예일대 법학 교수인 추아는 그녀가 “중국식 양육법”이라 칭한 방식을 통해 두 딸을 양육했던 사례를 책에서 이야기한다. 그녀의 양육 방식에서는 두 딸이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친구들과 노는 것은 물론, 심지어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대신 오직 공부에만 집중해야 했다. 추아의 생각에 이러한 엄격한 방식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듯하다. 두 딸 모두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이다.

**Paragraph 3**

However, Chua’s book is not a scientific study; it is an anecdotal account of just one family. Research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has shown that the children of the strictest parents do not actually achieve the highest grades overall. The economic position and educational history of one’s parents have been shown to have a greater impact on academic achievement. Furthermore, other developmental criteria, such as creativ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are more challenging to measure than academic success. We can’t know how happy Chua’s children are, but critics argue that authoritarian tiger parenting does not allow for pleasure or individual personal growth.

**Paragraph 4**

Chua’s book has been criticized for supporting Western stereotypes about East Asian parenting models by promoting and celebrating such extreme restrictions. In fact, Chua’s chosen parenting model is no longer particularly fashionable in modern China, where styles have become more liberal over the past twenty years. Furthermore, an eight-year study by the University of Texas found forty-four percent of Chinese-American parents could be called supportive rather than tiger (twenty-eight percent) or easy-going (twenty percent).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parents are not defined by ethnicity, and few conform to any one constant parenting model. Chua is rare in that she seems happy to use a reductive term like “tiger mother” to describe herself.

**단락 3**

그러나 추아의 책은 과학적 연구가 아니라 단지 한 가족의 경험담에 불과하다.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엄격한 부모를 둔 자녀들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성취도에는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학력 배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창의력과 감성 지능 같은 다른 발달 요소는 학업 성공보다 측정하기 어렵다. 추아의 딸들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한지는 알 수 없지만, 비평가들은 호랑이 엄마 양육 방식이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개인적인 성장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단락 4**

추아의 책은 동아시아 양육 모델에 관한 서구의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그러한 극단적인 제한을 찬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실, 추아가 선택한 양육법은 현대 중국에서는 이미 유행이 지난 방식이다. 지난 20년간 중국의 양육 스타일은 훨씬 더 자유로워졌다. 더구나, 텍사스 대학교의 8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계 미국인 부모의 44%는 호랑이 부모(28%)나 느긋한 부모(20%)가 아니라 지지적인 부모로 분류될 수 있다. 부모는 특정 민족성으로 정의되지 않으며, 어느 하나의 일관된 양육 모델을 따르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아는 자신을 "호랑이 엄마"와 같은 축소적인 용어로 묘사하는 것을 기꺼이 하는 매우 드문 사례다

**Paragraph 5**

In fact, most modern models of parenting are criticisms of other styles. As such, very few people would use parenting buzzwords to describe themselves. It is doubtful, for example, that anyone will ever introduce themselves to you as a “helicopter parent.” This term negatively describes mothers and fathers who constantly follow their children, overseeing every detail of their lives and engineering conditions that they—often wrongly—believe are beneficial. While they may not have unreasonable academic expectations or deny their children pleasures, they always decide what form entertainment takes, worry too much about what their children eat, and even dictate which friends their children can have.

**단락 5**

사실 대부분의 현대적 양육 모델은 다른 양육 방식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자신을 양육 관련 유행어로 표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스스로를 “헬리콥터 부모”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용어는 자녀의 삶의 모든 세부사항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며—종종 잘못되게—유익하다고 믿는 조건을 만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헬리콥터 부모는 자녀에게 과도한 학업적 기대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오락을 항상 결정하고, 식단에 과도한 신경을 쓰며, 심지어 자녀가 사귀는 친구들까지 통제하려 든다.

**Paragraph 6**

The so-called model of helicopter parenting describes another stereotype: the well-meaning but overly involved Western liberal parent. The term is perhaps most used by a previous generation who believe in more hands-off forms of parenting and feel as though they were the beneficiaries of tougher, more independent childhoods. The mistakes we make and the problems we have, these older people would argue, “make us who we are.” Presumably, supporters of hands-off parenting would also find the “lawnmower parent” deeply misguided. Lawnmower parents seek to remove obstacles before their children reach them: to make their children’s paths through life perfectly smooth. Where they exist, helicopter and lawnmower parents are probably motivated by a certain amount of—perhaps understandable—paranoia about the modern world and its risks. As with all intensive parenting, the need to be constantly active in our children’s lives may also result from thinking of parenting as a professional job rather than an unpredictable and occasionally messy family relationship.

**Paragraph 7**

Whatever their motivation or name, intensive parenting styles may have the opposite effect of what is intended, as children often rebel against the initial conditions that parents create. Furthermore, such unnatural situations are unlikely to educate children about the complexities and inconsistencies of a world they are born into—not one they are “preparing to enter.”

**단락 6**

헬리콥터 부모 모델은 또 다른 고정관념, 즉 선의를 가졌지만 과도하게 관여하는 서구의 자유주의적 부모를 묘사한다. 이 용어는 대체로 손을 덜 대는 양육 방식을 믿는 이전 세대가 자주 사용하며, 이들은 스스로 더 강인하고 독립적인 어린 시절의 혜택을 받았다고 느낀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겪은 문제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다”라는 주장을 펼친다. 이런 방식을 지지하는 이들은 “잔디 깎는 부모” 역시 심각히 잘못되었다고 여길 것이다. 잔디 깎는 부모는 아이들이 맞닥뜨리기 전에 장애물을 제거하여 아이들의 삶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려고 한다. 헬리콥터 부모나 잔디 깎는 부모가 존재한다면, 아마도 현대 세계와 그 위험에 대한—어느 정도는 이해할 만한—편집증적 태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집중적인 양육 방식은 자녀 양육을 때로는 예측 불가능하고 다소 혼란스러운 가족 관계로 보기보다는, 전문적인 직업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단락 7**

그 동기나 이름이 무엇이든, 집중적인 양육 방식은 의도와는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 아이들은 부모가 조성한 초기 환경에 종종 반발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런 인위적인 상황은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준비 중”인 세계가 아니라 이미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복잡함과 모순을 교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Unit 5**

**Lesson 1 The Value of Lies**

**Paragraph 1**

Lying is sometimes viewed as an entirely negative phenomenon, and you will often hear people simplistically say that they “hate liars.” But in fact, lying is completely natural, and we all do it because it serves many different purposes—some crucial to our survival, others to the functioning of our relationships and societies.

**Paragraph 2**

We only need to look at the natural world to understand that distorting the truth is not as perverse as it might seem. Killdeer—a type of bird—will often pretend to be injured to appear to be an easy meal, a skill they use to distract animals from their vulnerable eggs before safely flying away. We might like to think we are better than animals, but humans begin lying early, and research has shown that most of us know that it can benefit us by the time we reach six months old. By this stage, we have learned that pretending to cry or laugh guarantees us the attention of our parents. After this, older children tend to experiment with less rational lies: most of us can remember telling a lie at school that now seems entirely pointless. In fact, this is part of a learning process, and before long, we can evaluate which lies are of genuine benefit—and which will be believed.

**유닛 5**

**레슨 1 거짓말의 가치**

**단락 1**

거짓말은 때로 완전히 부정적인 현상으로 여겨지며,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나는 거짓말쟁이를 싫어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거짓말은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이며, 우리 모두 각기 다양한 이유로 거짓말을 한다. 어떤 거짓말은 생존에 필수적이며, 또 어떤 것은 우리의 관계와 사회의 작동을 위한 역할을 한다.

**단락 2**

자연계를 보면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그렇게 비뚤어진 일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킬디어라는 새는 스스로 다친 것처럼 보이게 연기하며 먹잇감처럼 보이도록 한다. 이는 약한 알을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날아가려는 전략이다. 우리가 동물보다 낫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인간도 매우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시작한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은 생후 6개월이면 거짓말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우리는 울거나 웃는 척하며 부모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이후 나이가 든 아이들은 비합리적인 거짓말을 실험하게 된다. 누구나 학교에서 했던 지금 생각하면 전혀 쓸모없는 거짓말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는 배우는 과정의 일부이며, 곧 어떤 거짓말이 진짜로 유익하며 믿음을 얻을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게 된다.

**Paragraph 3**

A large part of this learning curve is understanding that usually, lying is more trouble than it is worth. However, studies have shown that adults continue to do it throughout their lives, often using lies to “save face”: to hide mistakes or weaknesses and maintain their valuable sense of pride and dignity. Others casually lie to impress others, make connections, or build friendships: using lies as a kind of social lubricant that allows a smoother, more comfortable passage through life. For the majority of lies told, we have special names, such as “white lies,” “fibs,” or “bending the truth.” These are lies that most of us would not only consider harmless but sometimes regard as an act of kindness: “This soup is delicious!” “Your painting is really great!”

**Paragraph 4**

Of course, more serious lies are told to manipulate others, hide terrible crimes, or gain unfair advantages, but these are rare. Recent US studies have revealed that the most common place to lie is the workplace, where lies are predominantly used to get us out of responsibilities: common excuses include feeling unwell, family emergencies, and doctor’s appointments. Psychologically speaking, this is probably done to avoid overwhelming and unhealthy levels of stress or pressure. Of more than 1,000 Americans surveyed, only twenty-seven percent regretted having lied like this at work. Fundamentally, we think of our jobs as financial transactions, so, unlike with our personal relationships, we seem not to experience such a strong sense of guilt when we lie at work.

**단락 3**

이 학습 곡선에서 중요한 부분은 보통 거짓말이 그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성인들은 평생 거짓말을 계속하며, 종종 “체면을 세우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즉, 실수나 약점을 숨기고 자존감과 품위를 지키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들은 타인에게 인상을 주거나, 관계를 맺거나, 친분을 쌓기 위해 가볍게 거짓말한다. 이는 삶을 더 원활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일종의 사회적 윤활제 역할을 한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거짓말에는 특별한 용어가 있다. 예를 들어, “선의의 거짓말,” “작은 거짓말,” 혹은 “진실 왜곡” 등이 있다. 이러한 거짓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롭지 않다고 여기거나 때로는 친절한 행동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 수프 정말 맛있다!” “네 그림 정말 멋지다!”

**단락 4**

물론 더 심각한 거짓말은 타인을 조종하거나, 끔찍한 범죄를 숨기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말은 드물게 발생한다. 최근 미국 연구에 따르면 거짓말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장소는 직장이며, 여기서 거짓말은 주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다. 흔한 핑계로는 몸이 아프다거나, 가족 긴급 상황이 있다거나, 병원 진료를 예약했다는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1,000명이 넘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직장에서 이런 거짓말을 한 후 후회한 사람은 27%에 불과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직장을 금전적 거래의 장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에서 느끼는 것만큼 직장에서의 거짓말에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하다.

**Paragraph 5**

Besides being a moral issue, lying also creates stress, which is created from our limbic system (the part of our brain that produces feelings of anxiety). Normally, this anxiety would dissuade a person from telling larger lies. However, there are those who lie habitually; compulsive or pathological liars cannot help but lie. In 2001, a Spanish woman in her twenties claiming to be called Tania Head said she had escaped from the World Trade Center during the terrorist attacks and also claimed to have been dating someone who had died there. She even went so far as to lead the Survivors’ Network. However, not a word of her story was true, and once her lies were exposed, the media attacked her. Yet even though her lies were indeed deeply inappropriate, perhaps we would do better to think of Ms. Head as unwell or desperately trying to compensate for something important missing from her life. She had slipped to the far, lonely end of a spectrum that, in truth, we are all on.

**Paragraph 6**

Most of us lie less as we age because we learn it is not worth the stress, and we become more comfortable with who we are and with responsibilities we may not really want. But at almost every age, we rely on our ability to briefly “turn off” the truth and say, “Yes, that haircut really suits you.”

**단락 5**

거짓말은 도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 스트레스는 우리 뇌의 변연계(불안감을 생성하는 뇌의 부분)에서 발생한다. 보통 이런 불안감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거짓말을 막도록 설득한다. 그러나 일부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강박적이거나 병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 2001년, 스페인 출신의 20대 여성인 타니아 헤드는 자신이 세계무역센터 테러 공격 당시 탈출했으며, 그곳에서 사망한 사람과 연애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생존자 네트워크를 이끄는 데까지 이르렀으나, 결국 그녀의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그녀의 거짓말이 드러나자 언론은 그녀를 비난했다. 그녀의 거짓말이 부적절했더라도, 그녀를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삶에서 중요한 무언가의 결핍을 채우려 했던 사람으로 이해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그녀는 결국 우리가 모두 어느 정도 속해 있는 스펙트럼에서 극단적이고 외로운 끝까지 내몰린 사례일 뿐이다.

**단락 6**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거짓말을 덜 하게 되는데, 이는 거짓말이 스트레스에 비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를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책임감에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우리는 진실을 잠시 “덮어두고” “정말 그 머리 스타일 잘 어울린다”고 말하는 능력에 의존한다.

**Unit 5**

**Lesson 2 Liar, Liar**

**Paragraph 1**

When I was a kid, I stole five dollars from my mother’s purse and couldn’t sleep for two nights straight because of the shame that it brought me. When my mom found out what I had done, she didn’t punish me; instead, she said that my guilt had been punishment enough. You’d think that incident would’ve taught me about the importance of honesty, but the sad truth is that I still tell lies all the time—in all sorts of situations.

**Paragraph 2**

Luckily, I’m not the only one. A 1996 study by Dr. Bella DePaulo, a psychologist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revealed that most people are liars. She studied 147 people between the ages of eighteen and seventy-one and found that most of them lied at least once or twice a day, and college students lied to their mothers in one out of every two conversations. Another study, cited in *The Day America Told the Truth*, revealed that it’s not just moms to whom people lie: seventy-five percent of people lie to their friends, seventy-three percent to their siblings, and sixty-nine percent to their spouses. And, as a side note, most people are rather adept at this, with about three out of every four lies going unnoticed.

**유닛 5**

**레슨 2 거짓말에 숨겨진 진실**

**단락 1**

어릴 적에 엄마의 지갑에서 5달러를 훔쳤다가 그 수치심에 이틀 동안 잠을 못 잔 적이 있다. 엄마는 내 행동을 알아챘지만, 벌을 주지 않고 내 죄책감이 이미 충분한 벌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일을 통해 정직의 중요성을 배웠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다양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곤 한다.

**단락 2**

다행히 나만 그런 건 아니다. 버지니아 대학교 심리학자 벨라 드파울로 박사의 1996년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 그녀는 18세에서 71세 사이의 14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그중 대다수가 하루에 최소 한두 번 거짓말을 했고, 대학생들은 어머니와의 대화 두 번 중 한 번꼴로 거짓말을 했다. *미국이 진실을 말한 날*에 인용된 다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어머니에게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75%는 친구에게, 73%는 형제자매에게, 69%는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꽤 능숙해서 거짓말 세 건 중 약 두 건은 들통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Paragraph 3**

Most people do not consider bending the truth as a horrible act—a fact that Dr. Leonard Saxe of Brandeis University confirms—since it can help people escape potential punishment without harming others. If you show up late for work because you forgot to set your alarm, you’re better off telling your boss that you were stuck in traffic. In these situations, people don’t lie because they have malicious intentions; they’re just trying to avoid trouble. And lies like this, while dishonest, really don’t do any harm.

**Paragraph 4**

In fact, not being able to lie could signal developmental issues in young children. The Institute of Child Study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researched 1,200 children aged two to seventeen and found that about twenty percent of two-year-olds could lie. By age four, that number skyrocketed to ninety percent.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Dr. Kang Lee, admits that while children’s habit of lying may distress their parents, it’s a totally normal thing to do. Lying is a sign that a child has developed critical cognitive skills, such as recognizing what other people know and don’t know.

**단락 3**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을 약간 왜곡하는 행동을 심각한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는 브랜다이스 대학교의 레너드 삭스 박사도 확인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런 거짓말은 타인을 해치지 않고 자신이 처벌받을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알람을 설정하지 않아 지각했다면, 교통 체증 때문이었다고 상사에게 말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저 곤란을 피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정직하지는 않더라도 해를 끼치지 않는 거짓말도 있다.

**단락 4**

실제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발달 문제를 시사할 수도 있다. 토론토 대학교 아동 연구소는 2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 1,200명을 조사했는데, 약 20%의 2세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 4세가 되면 그 수치는 90%로 급증한다. 연구소 소장 강 리 박사는 아이들의 거짓말 습관이 부모를 당황하게 할 수 있지만,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거짓말은 아이가 타인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비판적 인지 능력을 개발했음을 나타내는 신호다.

**Paragraph 5**

In addition, kids don’t learn to lie entirely on their own; they learn it from the very people who tell them not to. From the College of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a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Robert Feldman points out a clear contrast in the lessons that adults teach their kids. For instance, parents tell children to always be honest; however, when little Jimmy receives an ugly sweater from his Aunt Betty—knitted by her own hands—Mom tells Jimmy that he should say he loves the gift. You can see what’s going on, right? Instead of her usual teaching, Mom instructs her son to lie, and in doing so, she teaches her son that bending the truth can be useful. Thus, children deduce that lies are acceptable as long as there appears to be a good reason for them.

**Paragraph 6**

Not everyone agrees that lying can be morally acceptable. The eighteenth-century German philosopher Immanuel Kant wrote that lying is always wrong, no matter the justifications. However, there are certain situations in which telling the truth seems incompatible with behaving morally. Take, for example, a woman whose husband abuses her. When she moves out, the husband confronts her brother to find out where she is. Would it be all right for the brother to tell a lie to the abusive husband in order to protect his sister?

**단락 5**

또한, 아이들이 거짓말을 스스로 터득하는 것만은 아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어른들에게서 배우기도 한다. 매사추세츠 대학 사회·행동과학대학의 로버트 펠드먼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 사이에 뚜렷한 모순이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부모는 아이들에게 늘 정직하라고 말하지만, 어린 지미가 베티 고모가 직접 떠준 별로 예쁘지 않은 스웨터를 받았을 때 엄마는 지미에게 선물이 마음에 든다고 말하라고 한다.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가? 엄마는 평소 가르침 대신 아들에게 거짓말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통해 거짓말이 유용하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따라서 아이들은 좋은 이유가 있어 보이는 한 거짓말이 용인될 수 있다고 추론한다.

**단락 6**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18세기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어떤 이유에서건 거짓말은 항상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것이 도덕적 행동과 양립하지 않는 상황도 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다 이사를 나간다. 이 남편이 그녀의 형제를 찾아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면, 형제가 누이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

**Paragraph 7**

Lying is a part of human nature that is used as a form of social lubricant and a means of self-preservation, and children learn this from an early age from the very people who say that lying is wrong. While there are certainly times when honesty is best, there are gray areas in which that assessment can be debated. So, at least for now, I’m going to try and feel less guilty about lying.

**단락 7**

거짓말은 사회적 윤활제이자 자기보존의 수단으로, 인간 본성의 일부이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거짓말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방법을 배운다. 물론 정직이 가장 중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 평가가 논의될 수 있는 회색 지대도 존재한다. 그래서 당분간은 내 거짓말에 대해 조금 덜 죄책감을 느껴보려 한다.

**Unit 6**

**Lesson 1 Why Explore Space?**

**Paragraph 1**

Space exploration has been the dream of humanity for thousands of years; it’s drawn huge public interest and investment, with high-profile CEOs such as Elon Musk, Jeff Bezos, and Richard Branson all building their own commercial space agencies. Yet, despite the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appeal of space, governments are far less eager to spend than most citizens assume when it comes to funding national space programs. In 2018, the average American believed that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or NASA, received 6.4 percent of tax dollars, and they wished to increase its funding to 7.5 percent. In truth, however, NASA’s funding was only 0.5 percent of the national budget, and even at its absolute peak in the Apollo era, it had only reached 4.5 percent. The 0.5 percent that NASA received in 2021 was equal to $23.27 billion—a small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but short of the $25 billion proposed by then-President Trump.

**Paragraph 2**

This conflict between humanity’s goals and the realities of paying for them raises a very important question about space programs: why are they so hard to fund? When it comes to space exploration, there’s sometimes the notion that it’s wasteful and that we shouldn’t spend money on problems in space when there are so many on Earth. So when it’s time to decide who gets government funds, space agencies are often low on the list of priorities.

**유닛 6**

**레슨 1 왜 우주는 탐사할 가치가 있는가?**

**단락 1**

우주 탐사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품어온 꿈이었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리처드 브랜슨과 같은 유명 CEO들이 자체 상업용 우주 기관을 설립하면서 거대한 대중의 관심과 투자를 끌어왔다. 그러나 우주의 도전, 기회, 매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 우주 프로그램 자금 지원에 있어 대부분의 시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극적이다. 2018년, 평균적인 미국인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전체 세금의 6.4%를 받는다고 믿었고, 이를 7.5%까지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NASA가 받는 예산은 국가 예산의 0.5%에 불과했고, 아폴로 시대 절정기에도 최대 4.5%에 그쳤다. 2021년 NASA가 받은 0.5%는 232억 7,000만 달러에 해당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한 금액이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25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단락 2**

인류의 목표와 그것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현실 사이의 이 갈등은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왜 자금 조달이 그렇게 어려운가? 우주 탐사에 대해서는 때때로 그것이 낭비라는 생각이 있다. 우주 문제에 돈을 쓰기보다는 지구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부 자금을 배분할 때 우주 기관은 종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Paragraph 3**

But wait: is space exploration wasteful? As with any industry, there is some “waste.” Rockets, for instance, cost millions of dollars but typically can only be used once (a problem many space agencies are working to fix). However, from the enormous expenses come many clear benefits. Knowledge gained through space exploration can help to advance other areas of science, prevent future extinction events, and produce technologies useful here on Earth.

**Paragraph 4**

For example, in 2015, NASA launched the Soil Moisture Active Passive (SMAP), a satellite that maps water content in the soil around the globe and identifies whether soils are frozen or thawed. This technology helps scientists understand the links between Earth’s water, energy, and carbon cycles and their effects on weather and climate. Thus, SMAP can improve our ability to predict natural disasters such as droughts. This powerful tool is free to the public, so people around the world can benefit from the data it collects. In addition, SMAP is relatively cheap when considering the cost of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 for example, in 2012, droughts throughout the American Midwest caused harvest failures equal to $30 billion.

**단락 3**

하지만 우주 탐사가 정말 낭비일까? 모든 산업과 마찬가지로, 우주 탐사에도 일부 “낭비”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 로켓은 수백만 달러가 들지만 일반적으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많은 우주 기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비용은 분명한 이익을 가져온다. 우주 탐사를 통해 얻은 지식은 과학의 다른 분야를 발전시키고, 미래의 대멸종 사건을 예방하며, 지구상에서 유용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기여한다.

**단락 4**

예를 들어, NASA는 2015년에 토양 수분 활성-수동 위성(SMAP)을 발사했다. 이 위성은 전 세계 토양 속 수분 함량을 지도화하고, 토양이 동결되었는지 해동되었는지를 식별한다. 이 기술은 과학자들이 지구의 물, 에너지, 탄소 순환 간의 연관성과 이들이 날씨 및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를 예측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이 강력한 도구는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전 세계 사람들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SMAP의 비용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예를 들어, 2012년 미국 중서부 전역에서 발생한 가뭄은 300억 달러에 달하는 수확 손실을 초래했다.

**Paragraph 5**

NASA also protects us from potential extinction events through the development and monitoring of asteroid warning systems. Asteroids are rocks in space that travel around the sun and sometimes cross paths with Earth. To prevent one from hitting the Earth, NASA is designing technologies such as the Double Asteroid Redirection Test (DART). DART will test the use of a spacecraft to deflect approaching asteroids and will potentially become the first planetary defense system. Besides defending Earth, NASA is working on colonizing Mars, a project that could make humanity an interplanetary species and ensure our long-term survival.

**Paragraph 6**

Another benefit of space exploration is the creation of technologies we use in other areas. GPS, one of the world’s most important communication systems, was built from technologies invented at NASA. In the 1960s, NASA scientists built a network of radio telescopes that were meant to capture images of quasars in distant galaxies. In the following decades, scientists reversed this process to determine the precise location of the telescopes and create a picture of the Earth’s shape and orientation; this led to the development of positioning satellites and GPS. That’s not all—space exploration technologies have also been used in other fields. The word “pixel,” often used in computer programming, was first used by NASA to describe how images from space could be transmitted back to Earth.

**단락 5**

NASA는 또한 소행성 경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잠재적인 대멸종 사건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소행성은 태양을 공전하며 때때로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우주 암석이다. NASA는 지구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 소행성 재지향 테스트(DART)와 같은 기술을 설계하고 있다. DART는 접근하는 소행성을 우회시키기 위해 우주선을 사용하는 방법을 테스트하며, 최초의 행성 방어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구를 방어하는 것 외에도 NASA는 화성 식민지화를 진행 중인데, 이는 인류를 행성 간 종족으로 만들어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

**단락 6**

우주 탐사의 또 다른 이점은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되는 기술을 창출하는 것이다. GPS는 NASA에서 개발된 기술로 만들어진 세계적으로 중요한 통신 시스템 중 하나다. 1960년대에 NASA 과학자들은 먼 은하의 퀘이사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해 전파망원경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후 몇 십 년간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반대로 활용해 망원경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고, 지구의 형태와 방향을 묘사했다. 이것은 위치 위성과 GPS 개발로 이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우주 탐사 기술은 다른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자주 사용되는 “픽셀”이라는 단어는 NASA가 우주에서 지구로 이미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했다.

**Paragraph 7**

Even with small budgets, space agencies around the world further humanity’s understanding of our universe. What NASA alone has done can be considered nothing short of astonishing. If it can achieve so much with just 0.5 percent of the US national budget, imagine what space agencies could do with the whole world’s support.

**단락 7**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우주 기관들은 우리 우주의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NASA의 성과는 경이롭다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다. 미국 국가 예산의 0.5%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다면, 전 세계의 지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Unit 6**

**Lesson 2 Red Planet Risks**

**Paragraph 1**

In his classic 1898 science fiction novel, *War of the Worlds*, H.G. Wells imagined creatures from Mars colonizing Earth. Today, though, spacecraft from Earth are the ones on Mars, and governments and businesses are making plans for accessing and utilizing the planet’s resources. Humans may even settle there before long, creating an exciting new paradigm for human civilization. However, before we reach that point, we must consider the obstacles that must be overcome to colonize the red planet successfully.

**Paragraph 2**

The US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first sent out spacecraft capable of exploring Mars in 1975. Two *Viking* spacecraft spent eight years looking for signs of life—and found none. However, they sent back enough valuable photos and knowledge to encourage NASA to continue the program. Since then, the agency has landed nine remote-controlled spacecraft on Mars, including *Curiosity* in 2011 and in 2020, *Perseverance*, whose mission was to investigate a single crater on the planet.

**유닛 6**

**레슨 2 화성 정착의 위험성**

**단락 1**

1898년에 출간된 H.G. 웰스의 고전 과학소설 *우주 전쟁*에서 웰스는 화성 생명체가 지구를 침략하는 장면을 상상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지구에서 발사된 우주선들이 화성을 탐사하고, 정부와 기업들이 이 행성의 자원을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류는 머지않아 화성에 정착할 수도 있으며, 이는 인간 문명에 흥미진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화성 식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는 데 필요한 장애물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단락 2**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1975년에 화성을 탐사할 수 있는 우주선을 처음으로 보냈다. 두 대의 *바이킹* 우주선은 8년간 생명체의 흔적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우주선들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진과 지식을 보내와 NASA가 프로그램을 계속하도록 장려했다. 그 이후로 NASA는 2011년의 *큐리오시티*와 2020년의 *퍼서비어런스*를 포함해, 총 9대의 원격 조종 우주선을 화성에 착륙시켰다. 특히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의 특정 분화구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다.

**Paragraph 3**

The US government allocated $2.7 billion to ensure the success of *Perseverance*. The simple fact that it successfully touched down on Mars is no small achievement: of the forty-nine missions sent to Mars, twenty-eight have failed, and four have partly failed. As for the reasons, they’re mainly related to Mars’s atmosphere being unsuitable for spacecraft to pass through: it is thick enough to cause some to break up and thin enough to fail at slowing down others safely. This means that with every launch, the spacecraft has a greater than fifty-percent chance of becoming a pile of Martian trash.

**Paragraph 4**

So why do governments take the risk? Well, many argue that these missions fulfill humanity’s need to “reach new horizons,” but that notion is rather abstract. More practically, missions increase national prestige and benefit economies. The US is not alone in its interest in Mars: Russia landed two rovers on the planet in 1971 (though neither managed to transmit useful data), and India placed a spacecraft into orbit around it in 2014. In May of 2021, the Zhurong vehicle made China the third country to land a Mars rover successfully. Although competition between nations is peaceful for the moment, growing influence on the planet could lead to future military confrontations.

**단락 3**

미국 정부는 *퍼서비어런스*의 성공을 위해 27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 우주선이 화성 착륙에 성공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성과이다. 지금까지 화성으로 발사된 49개 임무 중 28개가 실패했고, 4개는 부분적으로 실패했다. 실패 원인의 대부분은 화성 대기가 우주선이 통과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는 충분히 두꺼워 우주선을 부서지게 하지만, 또 충분히 얇아 안전하게 속도를 줄이지 못하게 한다. 이는 매 발사마다 우주선이 화성의 쓰레기 더미가 될 확률이 50%를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락 4**

그렇다면 왜 정부는 이런 위험을 감수할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임무가 인류의 “새로운 지평을 향한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다. 더 실용적으로는, 이런 임무들이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경제에 이익을 줄 수 있다. 미국만이 화성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1971년에 두 대의 로버를 행성에 착륙시켰고(둘 다 유용한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했지만), 인도는 2014년에 우주선을 화성 궤도에 진입시켰다. 중국은 2021년 5월 주룽 로버를 성공적으로 착륙시키며 화성에 로버를 보낸 세 번째 국가가 되었다. 현재로서는 국가 간 경쟁이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지만, 화성에서의 영향력 증가는 미래의 군사적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Paragraph 5**

National space agencies are not the only ones invested in Mars exploration. Business leaders such as Elon Musk and Jeff Bezos agree on the benefits of humans traveling to Mars to set up colonies. The advantages they point to include easing overcrowding on Earth and allowing our planet to recover from environmental damage. In addition, businesses like Musk’s Tesla could acquire valuable minerals from Mars, such as iron, titanium, nickel, and aluminum—material supplies that may soon become inadequate on Earth.

**Paragraph 6**

But making Mars habitable enough to mine is extremely difficult and will require companies to provide water, food, oxygen, and heat to colonists millions of kilometers away. Although water would be relatively easy to find at the planet’s ice caps and in underground lakes, energy is another matter. Large amounts of it would be needed to access water, grow food, provide heat, and fuel other human activity. As Mars is further from the sun than Earth and has regular dust storms, solar energy is not available, and the planet’s thin atmosphere rules out wind power. Thus, the only realistic choice is nuclear power, which would require transporting nuclear fuel and a reactor from Earth to Mars.

**단락 5**

국가 우주 기관들만 화성 탐사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엘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와 같은 기업 리더들 또한 인간이 화성으로 여행해 식민지를 설립하는 것의 이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들이 강조하는 장점은 지구의 인구 과밀을 완화하며, 환경 복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머스크의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은 화성에서 철, 티타늄, 니켈, 알루미늄과 같은 귀중한 광물을 획득할 수 있는데, 이는 지구에서 곧 부족해질 수 있는 물질들이다.

**단락 6**

그러나 화성을 채굴 가능한 거주지로 만드는 일은 극도로 어렵고, 기업들이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정착민들에게 물, 음식, 산소, 열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화성의 얼음층과 지하 호수에서 물을 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지만, 에너지는 다른 문제이다. 물을 구하고 식량을 재배하며 열을 제공하는 데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정기적인 먼지 폭풍으로 태양 에너지가 사용할 수 없고, 대기가 희박해 풍력 발전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인 선택지는 핵에너지뿐이다. 이는 핵연료와 원자로를 지구에서 화성으로 운송해야 함을 의미한다.

**Paragraph 7**

The planet also has high levels of radiation, which leads to cancer if not contained. So buildings on Mars would need to resist constant radiation and unpredictable events such as solar flares, effectively forcing settlers to live underground. Disasters are almost inevitable, and if private companies begin losing money, there is no guarantee they will remain involved. Therefore, governments may end up being forced to rescue their citizens, and with journey times at around seven months, any response would likely be too slow.

**Paragraph 8**

Even if we can successfully colonize Mars, this does not mean that we should. Exploring the planet has yielded little reward so far. Making the planet habitable could be damaging, expensive, and dangerous. Given all this, perhaps it would be best to admire the red planet through our telescopes and let its mysteries remain.

**단락 7**

화성은 높은 수준의 방사능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화성의 건물은 지속적인 방사능과 태양 플레어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을 견뎌야 하며, 정착민들은 사실상 지하 생활을 강요받게 된다. 재난은 거의 불가피하며, 민간 기업이 손실을 겪기 시작하면 이들이 화성 프로젝트에서 손을 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 정부가 자국민을 구출해야 할 수도 있는데, 여정이 약 7개월이나 걸리기 때문에 대응이 너무 늦을 가능성이 크다.

**단락 8**

화성 식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더라도,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화성을 탐사한 결과는 미미했다. 화성을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는 일은 환경에 해로울 수 있고, 비용이 많이 들며,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망원경을 통해 붉은 행성을 감상하며 그 미스터리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른다.

**Unit 7**

**Lesson 1 What Do Gen-Z Workers Want?**

**Paragraph 1**

Over the past twenty years, much has been written about what Millennials (those born between 1981 and 1996) expect from employment. In contrast to the generations that preceded them, they wanted fun, flexible, easy-going jobs and expected to be able to travel. They didn’t live to work, or so the saying went; instead, they worked to live. Today, those born after 1996 are entering the world of work, and Gen Zers, as they are known, have different expectations again—but why?

**Paragraph 2**

First, Gen Zers’ educational backgrounds may make a steadier, more traditional job desirable. By most measures, they are the best-educated generation that the planet has ever produced, but this has come at a great financial cost. University is now more expensive—and more essential—than ever before. Between 2010 and 2020, the average cost of undergraduate tuition in the US almost doubled. To fund this, in 2020, the average student borrowed $30,030. Thus, Gen Zers’ focus is less likely to be on perks than on finding a financially secure job, since most have finished university in debt.

**유닛 7**

**레슨 1 Z세대 근로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단락 1**

지난 20년간 밀레니얼 세대(1981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가 직장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이전 세대들과 달리, 그들은 재미있고 유연하며 부담이 적은 일을 원했고 여행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들은 일을 위해 살지 않고, 살기 위해 일한다고들 했다. 오늘날 1996년 이후 태어난 Z세대가 직업 세계에 진입하고 있는데, 이들은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단락 2**

우선, Z세대의 교육적 배경이 안정적이고 전통적인 직업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다. 대부분의 평가에 따르면, Z세대는 지구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지만, 이는 막대한 재정적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결과다. 오늘날 대학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비싸고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2010년과 2020년 사이 미국의 평균 학부 등록금은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20년 기준으로 평균 학생 대출금은 약 30,030달러에 달했다. 이로 인해 Z세대는 직장의 다양한 혜택보다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할 때 빚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Paragraph 3**

Another factor affecting Gen Z’s expectations could be the COVID-19 pandemic, which had a disproportionate effect on younger workers. According to the Pew Research Center, half of Gen Zers either experienced a job loss themselves or had a family member who did. Considering these worrying circumstances, along with the ongoing impact of the 2008 financial crisis and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it’s no wonder that young people have become anxious about their futures. So once again, instead of flexibility, many Gen Zers found themselves seeking stability.

**Paragraph 4**

With time, other trends may also be reversed. During the pandemic, many older workers appreciated the break from office life and felt that working from home might be “the future.” Conversely, and perhaps surprisingly, younger people did not feel the same. In one survey, just thirty-four percent of older workers complained about working from home, whereas forty-seven percent of Gen Zers did, often citing its negative effect on their mental health. In part, this may be because they typically have smaller, less comfortable homes or still live with their parents. In addition, some Gen Zers suspect that working flexibly between the home and office actually means an increased workload overall.

**단락 3**

Z세대의 기대를 좌우하는 또 다른 요인은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이는 젊은 근로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Z세대 중 절반은 스스로 일자리를 잃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일자리를 잃는 일을 겪었다. 이런 우려스러운 환경, 여기에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와 기후 변화의 위협이 더해지며,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연성 대신 많은 Z세대들은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단락 4**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경향도 바뀌고 있다. 팬데믹 동안 많은 나이 든 근로자들은 사무실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좋아했고 재택근무가 “미래의 일”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반면, 놀랍게도 젊은 사람들은 같은 느낌을 받지 못했다. 한 조사에서, 나이 든 근로자의 34%만이 재택근무에 대해 불평한 반면, Z세대의 47%가 불평했다. Z세대는 재택근무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종종 언급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이들이 더 작고 불편한 집에 살거나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Z세대는 집과 사무실을 오가며 유연하게 일하는 것이 결국 더 많은 업무량을 의미한다고 의심하기도 한다.

**Paragraph 5**

Young workers appreciate the clear distinction between home and work that a nine-to-five job provides. They rightly expect to be both trained and listened to by their bosses and know that this happens best face-to-face: research shows that members of this generation value personal development above all. Expanding on the initial investment of their educations, job seekers now put opportunities for continued learning and development at the top of their lists of requirements. Many look for programs like that of US communications company AT&T, which recently opened its own “university” for staff at its headquarters, which keeps its employees informed about the latest technologies.

**단락 5**

젊은 근로자들은 9시부터 5시까지의 직장이 제공하는 집과 일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높이 평가한다. 이들은 상사에게 교육을 받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이는 대면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세대는 개인 발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교육에 대한 초기 투자에 더해, Z세대 구직자들은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의 기회를 요구 사항 목록의 최상위에 둔다. 많은 이들이 미국 통신 회사 AT&T와 같은 프로그램을 찾는데, 이 회사는 최근 본사에 직원들을 위한 자체 "대학"을 열어 최신 기술에 대해 직원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다.

**Paragraph 6**

Another change in employment expectations is an increased interest in social responsibility. When job-hunting, social and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are now a bigger priority than ever before, with eighty-five percent of Gen Z job seekers saying that “serving a purpose and leaving a positive legacy for future generations” was important to them. Young people seek employment at companies like The Body Shop, which has targete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socially beneficial projects with its five-point policy: “support community trade, defend human rights, [stand] against animal testing, activate self-esteem, and protect our planet.” Furthermore, as the most ethnically diverse generation ever, Gen Zers also expect companies to have inclusive employment policies which reflect the world outside. As well as being ethically sound, these kinds of policies define a company as dynamic, progressive, and “going places,” making it a safe economic bet for the future.

**Paragraph 7**

Today, some employment experts have already moved on to consider the needs of Generation Alpha (children born after 2010), but this is probably a fool’s errand. Gen Z has shown us that unpredictable worldwide factors can quickly reverse trends and create new needs. Like Millennials, Gen Zers expect to be paid well for their work; however, the main perks they require are no longer flexibility and freedom but stability and ethics.

**단락 6**

고용에 대한 기대의 또 다른 변화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 증가이다. 구직 시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었으며, Z세대 구직자의 85%가 “목적을 이루고 미래 세대에 긍정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젊은 세대는 더 바디샵과 같은 기업에서 일하기를 희망한다. 이 회사는 “커뮤니티 무역 지원, 인권 수호, 동물 실험 반대, 자존감 활성화, 지구 보호”라는 5대 정책을 통해 환경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인종적으로 가장 다양한 세대인 Z세대는 기업이 외부 사회를 반영하는 포괄적인 고용 정책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윤리적으로 건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류의 정책들은 회사를 역동적이고 진보적이며 "발전하는" 곳으로 정의하여 미래를 위한 안전한 경제적 선택으로 만든다.

**단락 7**

오늘날 일부 고용 전문가들은 이미 알파 세대(2010년 이후 출생한 아이들)의 요구를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이는 아마도 헛된 노력일 것이다. Z세대는 예측할 수 없는 글로벌 요인들이 얼마나 빠르게 경향을 뒤바꾸고 새로운 필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밀레니얼 세대처럼 Z세대도 자신의 노동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기대하지만,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유연성과 자유가 아닌 안정성과 윤리성이다.

**Unit 7**

**Lesson 2 How to Be an Attractive Employee**

**Paragraph 1**

Understanding employers’ wants and needs have long been important when looking for work. Today, though, with an average of 250 applicants for every corporate job and only four to six of those being invited for an interview, having a strategy to appeal to employers is more important than ever. One way to build a strategy is to get inside the mind of the contemporary employer.

**Paragraph 2**

The first thing to remember is that employers spend an average of just six seconds looking at an application, given the high volume of candidates. Employment consultants Accenture found that the most common way to fall at the first hurdle is to have a cold, impersonal cover letter. This is followed in second place by a resume not written for the job in question. It is always best to identify keywords in the job description and include them in any resume. Resume tailoring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as resumes are now being read by AI bots that rapidly check them for desirable words, terms, and phrases.

**유닛 7**

**레슨 2 매력적인 직원이 되는 방법**

**단락 1**

고용주가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구직 활동에서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 일자리 한 개당 평균 250명이 지원하고 그중 단 4~6명만 면접에 초대되는 상황에서, 고용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전략을 세우는 한 가지 방법은 현대 고용주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단락 2**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고용주들이 지원서를 살펴보는 데 평균 6초밖에 할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지원자가 많기 때문이다. 고용 컨설팅 회사 액센추어는 첫 번째 관문에서 탈락하는 가장 흔한 이유로 차갑고 비인격적인 자기소개서를 꼽았다. 그 다음은 특정 직무에 맞춰 작성되지 않은 이력서였다. 직무 설명서에서 주요 단어를 찾고 이를 이력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력서 맞춤화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는 이제 AI 봇이 이력서를 읽고 바람직한 단어, 용어, 문구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Paragraph 3**

Also, remember that resumes are just the beginning of a long process of assessing potential employees. Eighty-seven percent of employers now turn to LinkedIn, a social-media website where people post their CVs, skills, and interests. In fact, several social-media sites may be referenced. This means it’s essential that candidates’ accounts represent them in the best possible light, not only as model professionals but also as well-rounded and likable people.

**Paragraph 4**

Given that most Gen Z job seekers have recently graduated from university, their paid employment history is likely limited to part-time jobs. These should not be left off resumes because they can illustrate transferable skills, even in vastly different fields. Accenture’s 2020 Gen Z job report found that internships have become an increasingly common way to boost employment history and display career commitment. Seventy-eight percent of graduates now complete one. In a typical internship, young people work unpaid within a company for six months to a year. While these roles can be very beneficial, they unfairly discriminate against young people from less wealthy backgrounds, who may not be able to spend a year working full-time without pay. Paid apprenticeships are also available with companies such as Sears, Walmart, and Hertz car rental, but competition for these can be as high as for many jobs.

**단락 3**

또한, 이력서는 직원 평가의 긴 과정 중 처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87 87%의 고용주가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이력서, 기술, 관심사를 게시하는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인 링크드인을 참조한다. 실제로 여러 소셜 미디어 사이트가 참조될 수 있다. 이는 지원자의 계정이 전문직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하고 호감을 주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단락 4**

대부분의 Gen Z 구직자들은 최근에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이들의 유급 경력은 아르바이트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험은 완전히 다른 분야라도 전이 가능한 기술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력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액센추어의 2020년 Z세대 구직 보고서에 따르면, 인턴십이 고용 이력을 늘리고 경력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점점 더 일반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78%의 졸업생들이 이를 완료했다. 일반적인 인턴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무급으로 일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은 매우 유익할 수 있지만,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시어스, 월마트, 허츠 렌터카와 같은 기업에서는 유급 견습생 프로그램도 제공하지만, 이 역시 많은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경쟁이 치열하다.

**Paragraph 5**

There are alternative ways to increase experience, which show a bit of ingenuity and altruism. Charities are always looking for volunteers and are unlikely to reject offers of help in the evenings or on weekends. These roles are highly likely to require and therefore develop soft skills—social abilities that are highly transferable between industries. They include empathy, effective communication,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and problem-solving. In fact, ninety-three percent of contemporary employers say that soft skills are essential when deciding whom to hire and that young candidates should be allowed to prove they have them. Employers may be keen to find people with soft skills because of a perception among older interviewers that Gen Zers spend their lives online and have lost the capacity to deal with people face-to-face.

**단락 5**

경험을 쌓는 대체 방법은 약간의 창의력과 이타심을 요구한다. 자선단체는 항상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으며, 저녁이나 주말에 도와줄 사람을 거절할 가능성은 적다. 이러한 역할은 소프트 스킬-산업 간에 높은 전이성을 가진 사회적 능력-을 요구하고 따라서 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프트 스킬에는 공감, 효과적인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창의성, 문제 해결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93%의 현대 고용주들은 소프트 스킬이 채용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며, 젊은 후보자들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주들은 Z세대가 온라인에서만 활동하고 대면 상호작용 능력을 잃었다고 인식하는 나이 든 면접관들의 견해 때문에 소프트 스킬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Paragraph 6**

Hard skills, which are often technical and industry-specific, can seem harder to acquire as they rely on specialist technology and training only available at universities and companies. But hard skills can be taught later, and candidates who lack them can compensate with other skills that are more accessible. Many hard skills can be learned through books, online, or in evening classes, and they have the potential to impress employers by proving that a candidate is willing to make an effort. In fact, a college education can sometimes be considered a waste of time. According to business entrepreneur Elon Musk, a history of “overcoming problems” and “evidence of exceptional ability” are more important than any college degree. As Musk sees it, graduating from a top university could suggest desirable abilities, but it certainly doesn’t guarantee them.

**Paragraph 7**

With 10.7 million people, many of whom hold advanced degrees, looking for work in the US alone, entering the employment race can be intimidating. However, it remains the case that many employers are happy to allow demonstrable social skills and motivation to fill any gaps in a young person’s resume.

**단락 6**

하드 스킬은 기술적이고 산업에 특화된 경우가 많아 대학과 회사에서만 제공하는 전문 기술과 훈련에 의존하기 때문에 배우기가 더 어려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드 스킬은 나중에 배울 수 있으며, 이를 갖추지 못한 후보자들이 다른 접근 가능한 기술로 보충할 수 있다. 많은 하드 스킬은 책, 온라인 자료, 저녁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으며, 이는 후보자가 노력할 의지가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고용주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대학 교육은 때로는 시간 낭비로 여겨지기도 한다. 비즈니스 기업가 일론 머스크는 "문제를 극복한 이력"과 "뛰어난 능력의 증거"가 어떤 대학 학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 머스크는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바람직한 능력을 시사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단락 7**

미국에서만 1,070만 명(그 중 많은 사람들이 고학력자)이 구직 중이어서, 취업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위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용주들은 젊은 사람들의 이력서에서 경험이 부족한 부분을 입증 가능한 사회적 기술과 동기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Unit 8**

**Lesson 1 Thinking Twice about Schools**

**Paragraph 1**

What do Leonardo da Vinci, Mozart, and Thomas Edison have in common? They all achieved extraordinary things, and they were all educated at home. For most of human history, learning at home was the norm; very few people attended school. Now parents in many parts of the world are rediscovering the value of homeschooling. Home-based learning refers to children’s education by their parents or tutors under parental supervision at home rather than by teachers in school. In the US—where the movement emerged in the late 1960s—5.4 percent of households reported homeschooling in 2020. Homeschooling is also on the rise in several other countries, especially Australia, Canada, and South Africa.

**유닛 8**

**레슨 1 학교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단락 1**

레오나르도 다 빈치, 모차르트, 토마스 에디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들은 모두 탁월한 업적을 이뤘고,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다. 대부분의 인류 역사 동안 가정에서의 학습이 일반적이었고,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오늘날, 세계 여러 지역의 부모들이 홈스쿨링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있다. 가정 기반 학습은 학교에서 교사가 아닌 부모나 가정교사의 감독 아래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을 뜻한다. 1960년대 후반에 이 운동이 처음 나타난 미국에서는 2020년에 가정학습을 하는 가구가 5.4%에 달했다고 보고되었다. 호주,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도 홈스쿨링이 증가하고 있다.

**Paragraph 2**

Parents have many reasons for choosing not to send their kids to school. According to a regular study conducted by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the number one reason parents choose to homeschool their kids is that they have concerns about the environment at school. This includes both public and private schools, and the concerns largely involve safety, peer pressure, bullying, and so on. Homeschooling allows kids to learn in an environment free of these harmful distractions. The second most-cited reason is that homeschooling lets parents personalize their kids’ education and provide the quality and content they want for their children. Other significant reasons include transmitting moral or religious values, special physical or psychological conditions, or a desire to approach education in a nontraditional manner.

**Paragraph 3**

Many parents choose to homeschool because they believe that they are better equipped to educate their children than the local schools are. The few studies that have explored this question suggest that those parents are right. One recent US study compared the achievement test scores of public-school students with those of kids who had been homeschooled. The homeschooled students were found to be at least one full grade level ahead of the public-schoolers in most subjects.

**단락 2**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미국 교육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환경에 대한 우려이다. 이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를 포함하며, 주로 안전, 또래 압력, 괴롭힘 등이 문제로 지목된다. 홈스쿨링은 이러한 해로운 방해 요소가 없는 환경에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이유는, 홈스쿨링이 자녀의 교육을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개인화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도덕적 또는 종교적 가치를 전수하려는 목적, 신체적·심리적 특별 상황, 전통적이지 않은 교육 방식을 선호하는 점 등이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단락 3**

많은 부모는 지역 학교보다 자신들이 자녀를 교육할 역량이 더 뛰어나다고 믿기 때문에 홈스쿨링을 선택한다. 이와 관련된 몇몇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부모들의 판단이 옳다는 결과가 나온다. 최근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공립학교 학생들과 홈스쿨링을 받은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 시험 점수를 비교했다. 대부분의 과목에서 홈스쿨링 학생들이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최소 한 학년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agraph 4**

Opponents of homeschooling criticize its lack of reliable structures, which are found in a “real” school, not to mention teachers with training and expertise. Homeschooling parents reply that education means maximizing a kid’s innate desire and ability to learn, not just transmitting specific facts at a set time and place. The rigid, uniform nature of traditional schooling, they believe, is not the best way to achieve this. Children all have different strengths, learning styles, and interests. In a large group, even the best teacher cannot adequately accommodate the specific needs of each child. Some students will find the lesson too slow, while others will struggle to keep up. Likewise, some will gladly participate in class discussions, while others will prefer to think things over quietly. Parents who homeschool can tailor instruction to their child’s personality and needs, even if they are not experts in the subject matter.

**단락 4**

홈스쿨링 반대자들은 '실제'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구조와 훈련받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반면, 홈스쿨링을 지지하는 부모들은 교육이란 특정한 지식만을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타고난 학습 욕구와 능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이라고 반박한다. 전통적인 학교 교육의 경직되고 획일적인 구조가 이를 이루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믿는다. 아이들은 각각 다른 강점, 학습 스타일,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대규모 학급에서는 최고의 교사일지라도 각 아이의 구체적인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다. 어떤 학생은 수업이 너무 느리다고 느끼는 반면, 또 다른 학생은 따라가느라 힘겨워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학생은 수업 토론에 기꺼이 참여하지만, 다른 학생은 조용히 생각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는 비록 자신이 해당 과목의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자녀의 성격과 필요에 맞게 교육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Paragraph 5**

Some may argue that traditional schooling is crucial for kids’ socialization and ensuring that they have plenty in common with their peers. However, this is precisely what many parents wish to avoid. Homeschooling parents seem to understand that the social habits acquired in traditional schools come with risks and may not be compatible with their own values. Statistics show that homeschooled children are no less socially adjusted than traditional school students; they have fewer behavior problems and are more likely to do volunteer work. So the argument could be made that being forced to socialize in the traditional school setting actually causes students to become more anti-social and selfish.

**Paragraph 6**

The shift from home education to universal schooling has happened only over the last two centuries or so. As with many other things that occurred over the same period, such as the adoption of fossil fuels, perhaps it’s time to reconsider that change. Who better to foster children’s personal development and natural hunger for learning than the people who love them most? Kids educated by their parents are flourishing academically, and they are doing so without the lack of freedom and the negative social influences found in formal schooling.

**단락 5**

전통적인 학교가 아이들의 사회성을 기르는 데 필수적이며 또래와 공통점을 많이 가지게 하는 데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많은 부모가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는 전통적인 학교에서 습득되는 사회적 습관이 위험을 수반하며 자신들의 가치관과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듯하다. 통계에 따르면, 홈스쿨링을 받은 아이들은 전통적인 학교 학생들에 비해 사회적 적응도가 떨어지지 않으며, 행동 문제는 더 적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전통적인 학교 환경에서 강제로 사회화되는 것이 학생들을 오히려 더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단락 6**

가정교육에서 보편적인 학교 교육으로의 전환은 지난 2세기 정도에 걸쳐 이루어졌다. 화석연료 사용의 채택과 같은 많은 변화가 있었던 이 시기처럼, 이제 그 변화를 다시 생각해볼 때가 왔는지도 모른다. 자녀의 개인적 성장과 타고난 학습 욕구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부모에 의해 교육받은 아이들은 학문적으로 성공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학교 교육에서의 자유 부족과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경험하지 않고도 그렇게 하고 있다.

**Unit 8**

**Lesson 2 Homeschooled Kids Miss Out**

**Paragraph 1**

Homeschooling is legal in the US and is on the rise. During the pandemic years of 2020 and 2021, the percentage of US households in which children were being homeschooled increased from 5.4 percent to 11.1 percent. But in most other countries, homeschooling remains severely restricted or almost unknown. Most of the world seems to have concluded that kids ought to go to school. But why? Advocates of homeschooling argue that it is the oldest and best method of educating children. Yet, there are compelling reasons to believe that schooling is a surer way of producing well-educated, socially engaged citizens.

**Paragraph 2**

Everyone has a stake in the proper education of children, which is too important to be left to parents who may not be qualified. Admittedly, some studies have shown better academic outcomes for children who study at home, but these studies have a serious weakness: they are entirely based on the results of standardized tests, which are less than perfectly reliable. It is more likely that homeschooled kids end up with worrying gaps in their education. After all, they are (usually) taught by only one or two individuals. Most parents who homeschool are often not adequately trained to teach and are not even required to have college degrees, as schoolteachers are. Furthermore, professional practitioners all have specialties; how many parents are experts in advanced math, world history, and biology?

**유닛 8**

**레슨 2 홈스쿨링이 놓치는 기회**

**단락 1**

미국에서는 홈스쿨링이 합법이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선택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 팬데믹 기간 동안, 홈스쿨링을 하는 미국 가정의 비율은 5.4%에서 11.1%로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홈스쿨링이 엄격히 제한되거나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세계의 대부분이 아이들은 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 같다. 그러나 왜 그럴까? 홈스쿨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홈스쿨링이 가장 오래된 동시에 최고의 교육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교 교육이 더 잘 교육받고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더 확실한 방법이라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다.

**단락 2**

모든 사람은 아이들의 적절한 교육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자격이 부족할 수도 있는 부모에게만 맡기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몇몇 연구에서는 집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더 좋은 학업 성과를 보인다고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중요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는 전적으로 표준화된 시험에 기초하고 있으며, 표준화 시험은 완벽히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홈스쿨링을 받은 아이들이 교육에서 우려스러운 공백을 갖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결국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단 한두 명의 개인에게서만 가르침을 받는다. 홈스쿨링을 하는 대부분의 부모는 교육 훈련을 충분히 받지 않았고, 학교 교사처럼 대학 학위를 요구받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전문가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다. 고급 수학, 세계사, 생물학에 모두 정통한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될까

**Paragraph 3**

Children who do not attend school also miss out on the intellectual excitement of learning with their peers. Classmates compete with and challenge one another. The term ”peer pressure” has a negative connotation—being most often associated with bad behaviors such as smoking—but remember that kids can also pressure each other to excel. And they can help one another. Research shows that when a more advanced child assists a less advanced one in his or her studies, both students benefit.

**Paragraph 4**

Besides academics, homeschooling fails in another important function: integrating kids into the larger community. At school, kids spend six to eight hours every day working and playing with their neighbors. This is an unparalleled way for children to learn to get along with others, particularly those different from themselves. The German education minister has said that “in our increasingly multicultural society, school is the place for a peaceful dialogue between different opinions, values, religions, and ideologies.” In other words, it is a force for social harmony and tolerance—when everyone participates.

**단락 3**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또래들과 함께 배우는 지적 자극을 놓친다. 학급 친구들은 서로 경쟁하고 도전한다. "또래 압력"이라는 용어는 주로 흡연과 같은 나쁜 행동과 연관되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아이들은 서로에게 우수한 성과를 내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또한 친구끼리 서로 도울 수도 있다. 연구에 따르면, 더 뛰어난 아이가 덜 발전된 아이의 학습을 돕는 경우, 두 학생 모두 이익을 얻는다.

**단락 4**

학업뿐만 아니라, 홈스쿨링은 또 다른 중요한 기능에서도 부족하다. 바로 아이들을 더 큰 공동체에 통합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매일 6~8시간 동안 이웃과 함께 공부하고 논다. 이는 특히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는 데에 비할 데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 독일 교육부 장관은 "우리의 점점 더 다문화화되는 사회에서 학교는 서로 다른 의견, 가치, 종교, 이념 간의 평화로운 대화의 장소"라고 말했다. 즉, 학교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때 사회적 화합과 관용을 이루는 힘이 된다.

**Paragraph 5**

Some of the consequences of homeschoolers’ isolation are more personal. Kids who do not attend school cannot be members of the school band, soccer team, or computer club, resulting in somewhat socially inhibited children. A related problem is the “differentness” of children who are homeschooled. Even in the US, where the practice is more common than in any other country, these children comprise a small minority and are thus singled out by their peers as “weird.” When they attempt to integrate with other kids, they face questions and criticism about their parents’ choice not to send them to school.

**Paragraph 6**

Homeschooled kids also frequently feel shut off from popular culture compared to those who attend school. Often, their parents have an unusual amount of control over their exposure to TV shows, movies, and music. One homeschooled blogger wrote about her experience at university, “I was essentially missing all of the cultural knowledge and shared background the other college students around me had. It has taken me years to adjust to mainstream society, and I think that in some ways, I will always feel a little bit like a foreigner.”

**단락 5**

홈스쿨러들의 고립으로 인한 결과 중 일부는 더 개인적인 성격을 띤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학교 밴드, 축구팀, 컴퓨터 클럽의 일원이 될 수 없어 다소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가 되기도 한다. 또 다른 관련 문제는 홈스쿨링 아이들의 "다름"이다. 홈스쿨링이 더 일반적인 미국에서도 이들은 소수에 속하므로 또래들에게 “이상하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이 또래들과 어울리려 할 때 부모가 왜 학교에 보내지 않았는지에 대해 질문과 비판을 받게 된다.

**단락 6**

홈스쿨링을 받은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 대중문화로부터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흔히 그들의 부모가 TV 프로그램, 영화, 음악에 대한 노출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통제하기 때문이다. 한 홈스쿨링 블로거는 대학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썼다. “다른 대학생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지식과 공통 배경이 저에겐 없었습니다. 일반 사회에 적응하는 데 몇 년이 걸렸고, 어떤 면에서는 평생 어느 정도 이방인처럼 느낄 것 같습니다.”

**Paragraph 7**

Surely, parents who homeschool their children only want the best for their kids, but many of those kids view the decision to be taught at home as harmful. They’d rather be like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world’s young people who go to school. The reluctance to make homeschooling legal in most countries is therefore understandable. People around the world realize that schooling provides opportunities for academic and personal development that home-based education cannot equal.

**단락 7**

분명히,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아이들 중 많은 이들은 집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해롭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학교에 가는 세계의 압도적 다수의 청소년들과 같아지고 싶어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홈스쿨링을 합법화하지 않는 이유는 이해할 만하다. 전 세계 사람들은 학교가 가정 기반 교육이 따라갈 수 없는 학문적, 개인적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Unit 9**

**Lesson 1 Creative People Are Different**

**Paragraph 1**

The car you drive, the song you love dancing to, the film that makes you cry, and the medicine that keeps you healthy—all are the results of creativity. The urge to create is uniquely human. It is part of human nature to imagine things that don’t exist yet, and the results of creativity include beautiful works of art and novel solutions to problems. However, it’s obvious that some people are better at this type of imagining than others. A minority of highly creative people are responsible for most ideas that shape our culture and everyday lives.

**유닛 9**

**레슨 1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별함**

**단락 1**

여러분이 운전하는 자동차, 춤을 추고 싶게 만드는 노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영화, 건강을 유지하는 약—이 모든 것은 창의성의 결과물이다. 창작하려는 욕구는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며, 창의성의 결과물로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과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이런 상상력을 더 잘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극소수의 창의적인 사람들 덕분에 우리의 문화와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생겨난다.

**Paragraph 2**

As you might expect, creative people’s minds work differently from others. Highly creative people particularly excel at divergent thinking—the ability to generate many possible answers by allowing the mind to connect ideas in unexpected ways. Creative people are also mentally resourceful. For example, most people always took it for granted that a painter could only depict an object from one perspective. Pablo Picasso wondered if it were possible to show multiple perspectives at once and thus created cubism. Surprisingly, scientists have witnessed how thought processes linked to revolutionary thinking in creatives utilize certain brain areas. One study compared the brain images of university art students to those of non-artists. An area that showed particular interest was the precuneus, the part of the brain that controls the “mind’s eye,” or the ability to visualize, combine, and manipulate images. Researchers detected greater precuneus development in artists than in non-artists.

**단락 2**

예상할 수 있듯이, 창의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작동한다. 매우 창의적인 사람들은 특히 발산적 사고, 즉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연결해 다수의 가능성 있는 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들은 또한 정신적으로 매우 자원이 풍부하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는 단일한 관점에서만 대상을 묘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파블로 피카소는 한 번에 여러 관점을 표현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고, 그렇게 해서 입체주의를 창조했다.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창의적인 사람들의 혁신적 사고 과정이 특정 뇌 영역을 활용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한 연구에서는 대학의 미술 전공 학생들과 비예술가들의 뇌 영상을 비교했는데, 특히 주목받은 부위는 설전부로, 이는 뇌의 '마음의 눈'이라 불리며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결합하며 조작하는 능력을 담당한다. 연구자들은 예술가들에게서 설전부가 비예술가들보다 더 발달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Paragraph 3**

A related characteristic that creatives share is a willingness to take risks. Psychologists have found a link between having a so-called “Type T” personality and being creative. Type Ts constantly seek out new and stimulating experiences, even when doing so is risky. They’re nonconformists who rely on their own judgment rather than obeying rules and conventions. Mihaly Csikszentmihalyi was a psychologist and the author of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He quoted a Nobel Prize-winning economist: “One of the most common failures of able people is a lack of nerve. They’ll play safe games. In innovation, you have to play a less safe game if it’s going to be interesting.”

**Paragraph 4**

The courage to take risks isn’t worth much unless it comes with a drive to keep going. Contrary to popular opinion, most highly creative people produce a lot that is so-so and only a little that is great. But instead of letting their failures discourage them, they keep working—sometimes obsessively—to refine their ideas and reach their goals. The composer Pyotr Tchaikovsky wrote a letter to a friend complaining that some colleagues of his gave up too easily: “We must always work, and a self-respecting artist must not fold his hands [just because] he is not in the mood.” This drive comes from within the creators themselves, not from a desire for money or other external rewards.

**단락 3**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또 다른 특징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태도이다. 심리학자들은 소위 말하는 ‘T형’ 성격과 창의성 간의 연관성을 발견했다. T형 성격의 사람들은 항상 새롭고 자극적인 경험을 추구하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들은 관습을 따르기보다 자기 판단에 의존하는 비순응주의자이다. 심리학자이자 *창의성: 몰입과 발견 및 발명의 심리학의* 저자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의 말을 인용했다. “뛰어난 사람들의 가장 흔한 실패 중 하나는 용기의 부족이다. 이들은 안전한 길만 택한다. 혁신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길을 택해야 더 흥미로운 일이 생긴다.”

**단락 4**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도 지속적인 추진력 없이라면 큰 의미가 없다. 대중의 의견과는 반대로, 매우 창의적인 사람들은 평범한 것을 많이 만들어내고 위대한 것은 조금만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들은 실패에 낙담하지 않고 계속 작업하며, 때로는 집착적으로 아이디어를 다듬고 목표에 도달하려고 한다. 작곡가 표트르 차이콥스키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동료들 중 일부가 쉽게 포기한다고 불평하며 이렇게 썼다. “우리는 항상 일해야 하며, 자존심 있는 예술가는 단순히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추진력은 돈이나 다른 외적 보상이 아닌 창작자 본인들 내부에서 나온다.

**Paragraph 5**

This combination of characteristics—unusual thought patterns, risk-taking, and the stubborn pursuit of a goal—is not the best recipe for a happy social life. Others often see divergent thinking as odd, and dedication to a creative project often entails many hours alone. The neuroscientist Nancy C. Andreasen, author of *The Creative Brain*, writes that “a highly original person may seem odd or strange to others.” The very creative may face “criticism or rejection for being too questioning or too unconventional,” resulting in feelings of loneliness and isolation.

**Paragraph 6**

Nevertheless, don’t feel too sorry for creative types, as being considered slightly abnormal seems like a small price to pay for the rewards of being able to create. Here i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e highly creative and everyone else: when they are alone, working late into the night on an original idea that deeply interests them or could change the world someday, highly creative people experience a joy that few others do. Csikszentmihalyi said that “The excitement of the artist at the easel or the scientist in the lab comes close to the ideal fulfillment we all hope to get from life, and so rarely do.”

**단락 5**

이런 특성들—독특한 사고 패턴, 위험 감수, 그리고 목표를 향한 고집—은 행복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이상적인 조건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발산적 사고를 이상하게 여길 때가 많으며,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헌신은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의적인 뇌*의 저자인 신경과학자 낸시 C. 안드레아슨은 “매우 독창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거나 낯설게 보일 수 있다”고 썼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너무 많은 의문을 제기하거나 너무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받거나 거부당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다.

**단락 6**

그렇다고 창의적인 사람들을 너무 안쓰럽게 여길 필요는 없다. 약간 비정상적으로 간주되는 것은 창작의 보상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작은 대가처럼 보인다. 다음은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가장 큰 차이다. 늦은 밤까지 자신만의 아이디어에 몰두하면서, 깊은 흥미를 느끼거나 언젠가 세상을 바꿀지도 모를 그 순간에,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깊은 기쁨을 느낀다. 칙센트미하이는 이렇게 말했다. “이젤 앞에 선 예술가나 실험실에 있는 과학자의 흥분은 우리가 삶에서 얻고자 하는 이상적인 충족감에 매우 가까우며, 이를 실제로 경험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Unit 9**

**Lesson 2 Are Geniuses Normal?**

**Paragraph 1**

Geniuses are kind of odd—or so most people believe. There are stories about great creators throughout history who were more than a little eccentric. It is said that Michelangelo seldom bathed or changed his clothes; the poet Lord Byron kept a pet bear in his dorm room at Cambridge University; Nikola Tesla claimed he never slept more than two hours at a time; and Steve Jobs experimented with an all-fruit diet.

**Paragraph 2**

Scientific research even confirms that we associate creativity with being different. In one study, two groups looked at photos of a fictional artist and his work. One group was shown an ordinary-looking man in a suit, and the other an unusually dressed man with a strange hairstyle. Although the groups were shown identical works of art, the second group liked the art more.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we expect creative people to be free spirits and not constrained by the standard rules of society. But is this view of creativity accurate?

**유닛 9**

**레슨 2 천재는 특별한 사람일까?**

**단락 1**

천재는 어딘가 괴짜라는 인식이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약간은 별난 위대한 창작자들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미켈란젤로는 목욕도, 옷을 갈아입는 일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시인 바이런 경은 케임브리지 대학 기숙사에서 곰을 애완동물로 키웠다. 니콜라 테슬라는 두 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티브 잡스는 과일만 먹는 식단을 실험하기도 했다.

**단락 2**

과학적 연구조차 우리가 창의성을 독특함과 연관 짓는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한 실험에서 두 그룹에게 가상의 예술가와 그의 작품 사진을 보여줬다. 한 그룹에는 평범하게 정장을 입은 남자를, 다른 그룹에는 독특한 복장과 이상한 헤어스타일을 한 남자를 보여줬다. 두 그룹 모두 동일한 작품을 봤지만, 두 번째 그룹은 예술 작품을 더 높이 평가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사회의 규칙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영혼일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 창의성에 대한 관점이 과연 정확할까?

**Paragraph 3**

Despite the colorful tales about historical innovators, there is some reason to believe that creative people are not particularly odd overall. For one thing, many of these stories are exaggerated by popular imagination. In fact, it wasn’t that unusual for people to bathe rarely during Michelangelo’s time, before convenient water supplies and modern hygiene standards existed. The “fruitarianism” of Steve Jobs wasn’t unique to him but is shared by quite a few vegans (though its health effects are worthy of criticism). And so on.

**Paragraph 4**

More importantly, the stereotype of the strange genius doesn’t consider the many great creators who followed the rules, both in their work and in life. William Shakespeare is a giant of literature, but he largely followed literary convention in his poems and plays. He also lived a quiet, thoroughly ordinary life with his wife and their three children. Johann Sebastian Bach was another responsible family man who produced immortal works of art—within the fairly rigid musical structures accepted as proper in Germany in the 1700s.

**단락 3**

역사적 혁신가들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특별히 괴상하지 않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이런 이야기들 중 많은 부분이 대중적 상상에 의해 과장되었다. 실제로, 미켈란젤로가 살던 시대에는 현대적인 위생 기준이나 편리한 물 공급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자주 목욕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스티브 잡스의 '과일주의'도 그만의 독창적인 일이 아니며, 일부 채식주의자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식단이다(물론 건강상의 비판은 있다).

**단락 4**

더 중요한 것은, 이상한 천재라는 고정관념이 자신의 작업과 삶에서 모두 규칙을 따랐던 많은 위대한 창조자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문학의 거장이지만 그의 시와 희곡에서는 대부분 당대의 문학적 관습을 따랐다. 그는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역시 가족을 책임감 있게 돌보는 사람이었으며, 1700년대 독일에서 적법하게 인정된 엄격한 음악적 구조 안에서 불후의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

**Paragraph 5**

One anecdote illustrates very well how creativity can occur without an eccentric personality behind it. When the psychologist Mihaly Csikszentmihalyi was researching creative people and what they have in common for a book he was writing, one of the innovators with whom he sought an interview was Peter Drucker. A business consultant and author, Drucker is widely considered the founder of modern management theory and education. In his reply, Drucker politely thanked the researcher for honoring him with the request before explaining why he couldn’t help and why he even rejected the label “creative”:

**Paragraph 6**

*“I am told I am creative — I don’t know what that means . . . I hope you will not think me presumptuous* *or rude if I say that one of the secrets of productivity (in which I believe, whereas I do not believe in creativity) is to have a VERY BIG wastepaper basket* *to take care of ALL invitations such as yours.”*

**단락 5**

한 일화는 창의성이 기이한 성격 없이도 일어날 수 있음을 매우 잘 보여준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창의적인 사람들과 그들의 공통점에 대해 책을 쓰기 위해 연구하고 있을 때, 그가 인터뷰를 요청한 혁신가 중 한 명이 피터 드러커였다. 경영 컨설턴트이자 작가인 드러커는 현대 경영 이론과 교육의 창시자로 널리 여겨진다. 드러커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며 협조할 수 없는 이유와 함께 자신이 왜 '창의적'이라는 말을 거부하는지 설명했다:

**단락 6**

*“람들은 내가 창의적이라고 하는데—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건방지거나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생산성의 비밀 중 하나는 (나는 창의성을 믿지 않지만 생산성은 믿는다) 당신의 초대와 같은 모든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 아주 큰 쓰레기통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Paragraph 7**

Drucker was an original and influential person who clearly disagreed with Csikszentmihalyi’s thesis that creativity is an exceptional trait or a set of features. He didn’t see himself as unique but believed that his achievements resulted from consistent hard effort and, above all, careful use of his time. (Many productive people seem to agree. Out of several hundred invitations to successful artists, writers, scientists, and other achievers sent by Csikszentmihalyi, only ninety-one people took the time to grant him an interview.)

**Paragraph 8**

In a way, this is a more attractive concept of creativity than the popular idea of the genius as a troubled rebel. Maybe creativity isn’t a rare personality trait that we are or aren’t born with but something we might all be able to attain through conscious effort and good habits. What could be more normal than that?

**단락 7**

드러커는 독창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창의성을 특별한 자질이나 특성으로 보는 칙센트미하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의 업적은 꾸준한 노력과 특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서 나왔다고 믿었다. (많은 생산적인 사람들이 이에 공감하는 듯하다. 칙센트미하이가 성공한 예술가, 작가, 과학자 등에게 보낸  수백 개의 초대장 중 단 91명만이 시간을 내어 그에게 인터뷰를 허락했다.)

**단락 8**

어떤 면에서 이는 천재를 고뇌하는 반항아로 보는 대중적인 관념보다 더 매력적인 창의성 개념이다. 아마도 창의성은 타고나는 희귀한 성격 특성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올바른 습관을 통해 우리가 모두 얻을 수 있는 능력일지도 모른다. 그것만큼 더 평범한 것이 있을까?

**Unit 10**

**Lesson 1 An Aging World**

**Paragraph 1**

When it comes to trends in global demographics, there’s good news and bad news: the good news is that people around the world are living longer. The average woman can expect to live to age seventy-five, and the average man to seventy-one. As recently as 1950, these numbers were only fifty-three and forty-eight—principally because of much higher infant and early-childhood mortality levels.

**Paragraph 2**

Now for the bad news: this amazing increase in life expectancy has coincided with a steep worldwide drop in birth rates. For a country to maintain its population (without immigration), there must be at least 2.1 births per woman. Despite declines in recent decades, many developing nations continue to have birth rates at or above this level, but no rich country does. As of 2021, the US’s birth rate stood at 1.6, Germany’s at 1.5, China’s at 1.3, and South Korea’s at 0.9. Some would say this isn’t bad news but a welcome change in a too-crowded world. However, falling birth rates along with rising life expectancy mean that populations in developed countries are steadily getting older. And aging populations present a number of serious challenges.

**유닛 10**

**레슨 1 고령화 사회**

**단락 1**

세계 인구 통계 추세에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은 전 세계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75세, 남성은 71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된다. 1950년만 해도 이 숫자는 각각 53세와 48세에 불과했다—주로 훨씬 높은 영아 및 유아 사망률 때문이었다.

**단락 2**

이제 나쁜 소식이다: 이러한 놀라운 기대수명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급감과 맞물렸다. 한 나라가 인구를 유지하려면(이민 없이) 여성 한 명당 2.1명의 아이가 태어나야 한다. 최근 몇 십 년 동안 출산율이 감소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여전히 이 수준 이상으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유한 나라는 그렇지 않다. 2021년 기준, 미국의 출산율은 1.6, 독일은 1.5, 중국은 1.3, 그리고 한국은 0.9이다. 일부는 이것이 나쁜 소식이 아니라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는 반가운 변화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는 선진국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화된 인구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Paragraph 3**

Probably the most obvious problem is basic economics. With age comes retirement and, often, a need to supplement one’s income. Like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US offers a government pension program to its senior citizens, so the number of retirees compared to the number of working-age people has major implications for the national budget. Economists refer to this figure as the old-age dependency ratio, which is how many senior citizens there are for every hundred people aged fifteen to sixty-four. Over the last seventy years, this ratio has risen from 12.6 to 25.6 in America, and it’s still climbing. Stress on the economy is already showing: in 2020, Social Security (the national pension program) began paying out more money to seniors than it collected in taxes. Experts predict that by 2035, the program will lack the funds to pay retirees what it has promised. Similar worries affect governments across the world.

**Paragraph 4**

The challenges of an aging population inevitably extend to healthcare. Living longer doesn’t mean living healthier, and many older people suffer from at least one chronic illnes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onducted studies to see if payroll taxes could continue to support healthcare in countries with rapidly aging populations. The research concluded that the model would not be sustainable and suggested that countries find other sources of healthcare funding.

**단락 3**

아마도 가장 분명한 문제는 경제적 문제일 것이다. 나이가 들면 은퇴하고, 종종 소득을 보충할 필요가 생긴다.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노인들을 위한 정부 연금 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 은퇴자 수와 경제 활동 인구 수의 차이는 국가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학자들은 이 수치를 노년부양비라고 부르는데, 이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100명당 노인 수를 말한다. 지난 70년 동안, 미국의 이 비율은 12.6에서 25.6으로 증가했고, 여전히 계속 상승 중이다. 이미 경제에는 스트레스가 나타나고 있다: 2020년에 사회보장제도(국가 연금 프로그램)는 세금으로 걷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노인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2035년까지 이 프로그램이 약속한 금액을 은퇴자들에게 지급할 자금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비슷한 우려가 전 세계 정부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락 4**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의료 분야로 확장된다. 오래 산다고 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니며, 많은 노인들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급속히 고령화되는 인구를 가진 국가들에서 급여세가 계속해서 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이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고, 국가들이 다른 의료 자금 출처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Paragraph 5**

The health problems of old age are worsened by loneliness. We tend to picture ourselves growing old surrounded by children and grandchildren, but in a world where “family trees are upside down,” as one author describes the birth-rate crisis, more people find themselves alone at the end of their lives. In South Korea, the number of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grew from 1.22 million in 2015 to 1.66 million in 2020. “Loneliness acts as a fertilizer for other diseases,” Dr. Steve Cole of UCLA explained in 2019. His research shows that loneliness is a risk factor for not only depression but also high blood pressure, heart disease, and Alzheimer’s disease, among other illnesses.

**Paragraph 6**

Some downsides of an aging population are hard to quantify. How do you calculate the lost value of great ideas from young people who don’t exist? Our elders rightly receive respect for their life experience, wisdom, and contributions to their families and societies, but it’s hard to deny that a younger population is more dynamic. The British novelist Kazuo Ishiguro said (at age fifty-four) he was “haunted” by the knowledge that most great novels were written by people under forty. Facebook, Google, Microsoft, and Apple were all founded by people under twenty-six.

**단락 5**

노년기의 건강 문제는 외로움으로 인해 악화된다. 우리는 자녀와 손주들에 둘러싸여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지만, 한 작가가 출산율 위기를 "가족 나무가 거꾸로 된" 세상이라고 묘사한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에 혼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한국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수는 2015년 122만 명에서 2020년 166만 명으로 증가했다. UCLA의 스티브 콜 박사는 2019년에 "외로움은 다른 질병의 비료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연구는 외로움이 우울증뿐만 아니라 고혈압, 심장병, 알츠하이머병 등의 질병의 위험 요소임을 보여준다.

**단락 6**

고령화 사회의 일부 부정적인 측면은 정량화하기 어렵다. 존재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위대한 아이디어의 손실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우리 어르신들은 그들의 인생 경험, 지혜, 그리고 가족과 사회에 대한 기여로 당연히 존경을 받지만, 더 젊은 인구가 더 역동적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영국 소설가 가즈오 이시구로는 (54세 때) 대부분의 위대한 소설이 40세 미만의 사람들에 의해 쓰였다는 사실에 "사로잡혔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모두 26세 미만의 사람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Paragraph 7**

That we’re enjoying longer lives is certainly something to celebrate. But just as certain are the economic and social issues that result when nations age and births decline. Some governments are instituting incentives to have more children, while others are focusing on extending the work lives and improving the health of the elderly. Combining these strategies is probably necessary to handle the massive changes we are seeing in the global population.

**단락 7**

우리가 더 오래 살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국가들이 고령화되고 출생률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은 분명하다. 일부 정부는 더 많은 자녀를 갖도록 장려책을 도입하고 있고, 다른 정부는 노인들의 근로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 인구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대규모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러한 전략들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Unit 10**

**Lesson 2** **Demographic Destiny**

**Paragraph 1**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 British philosopher and economist Thomas Malthus predicted that the massive human population growth occurring at the time would lead to widespread starvation and conflict as communities fought over limited resources. Industrialization and market capitalism, however, would go on to prove Malthus wrong. As manufacturing and agriculture became more sophisticated, governments and businesses were consistently able to produce the goods and services that people needed. During the late twentieth century, academics again worried that large-scale population changes would caus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except that this time, the problem was an insufficiency of people. As populations began to stagnate and decline, most notably in rich, developed nations, these thinkers worried that without a constant supply of labor, societies would no longer be able to support themselves. However, in recent years, a growing number of commentators have been arguing against this belief and setting out a very different vision of a future with fewer humans.

**유닛 10**

**레슨 2 인구학적 운명**

**단락 1**

18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토마스 맬서스는 당시 일어나고 있던 대규모 인구 증가가 제한된 자원을 두고 지역사회 간 갈등과 광범위한 기아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산업화와 시장 자본주의는 맬서스의 예측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조업과 농업이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정부와 기업들은 사람들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 20세기 후반에 학자들은 다시 한 번 대규모 인구 변화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에는 문제가 인구 부족이었다. 특히 부유한 선진국에서 인구가 정체되고 감소하기 시작하자, 이 사상가들은 지속적인 노동력 공급이 없으면 사회가 더 이상 자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평론가들이 이러한 믿음에 반대하며 인구가 더 적은 미래에 대한 매우 다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Paragraph 2**

Founded in the late 2010s, a campaign called “The Great Decrease” has been helping to convince people that a declining population will not necessarily lead to disaster. The movement began in the Netherlands, a country facing a steep population decline in the coming decades. Rural areas will be particularly affected by this change, with some likely to lose up to sixteen percent of their populations by 2040. Many experts have noted that a decreas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in these areas will lead to stagnation in local economies. It could also cause a social-care crisis, as older adults will lack both the physical and economic support of younger family members and neighbors.

**단락 2**

2010년대 후반에 시작된 "위대한 감소"라는 캠페인은 인구 감소가 반드시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운동은 향후 수십 년간 급격한 인구 감소에 직면할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다. 농촌 지역은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을 것이며, 일부 지역은 2040년까지 인구의 최대 16%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역에서 근로 연령 인구의 감소가 지역 경제의 정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들이 젊은 가족 구성원과 이웃들의 신체적, 경제적 지원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되어 사회 돌봄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Paragraph 3**

However, those behind the Great Decrease campaign believe that governments and businesses have the tools to deal with such issues. They suggest that governments increase workforce participation among underrepresented groups such as women and the elderly. They could also help retrain unemployed people to get them back into the workplace. In South Korea, for example, the government plans to aid female workers and businesses by giving incentives to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that retain employees for more than a year after they have children. They hope that they’ll be able to keep the economy stable and protected from population decline by doing this. Countries can also increase workplace participation among the elderly by implementing technologies that will help them remain productive. Efforts such as these can be combined to continue providing the tax revenue the state needs.

**Paragraph 4**

Some academics even argue that a shrinking population could help solve other crises. Of particular concern is climate change, the negative effects of which have become increasingly apparent in recent years as weather patterns shift and natural disasters occur more frequently. Climate change is directly linked to the population growth of the last few centuries: the ever-rising human consumption of raw materials and manufactured products has led to unsustainable levels of pollution. As the human population stops growing and eventually shrinks, humans will create less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will become considerably easier to manage.

**단락 3**

그러나 위대한 감소 캠페인을 이끄는 사람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정부가 여성과 노인 등 소외된 계층의 노동 참여를 늘릴 것을 제안한다. 또한 실업자들을 재교육하여 직장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정부가 직원이 자녀를 출산한 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로부터 경제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국가들은 또한 노인들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노인들의 직장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결합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세수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단락 4**

일부 학자들은 심지어 인구 감소가 다른 위기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기후 변화로, 최근 몇 년 동안 기상 패턴의 변화와 자연 재해의 빈번한 발생으로 그 부정적인 영향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기후 변화는 지난 몇 세기 동안의 인구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인간의 원자재와 제조품 소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오염을 초래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인간의 원자재와 제조품 소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오염을 초래했다. 인구 증가가 멈추고 결국 감소하면, 인간은 더 적은 오염을 만들어내고 기후 변화는 상당히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Paragraph 5**

A declining population could also benefit human rights and equality around the world, both by promoting gender equality and by providing more opportunities for migration from developing to developed countries. In many regions, women still have fewer educational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than men do. As the population shrinks, governments will place more value on educating young women to fill gaps in the workforce. The same is true of immigration. Today, many governments still prefer to keep immigrants out in favor of their own citizens. To boost their economies in the coming decades, these governments will likely be compelled to allow much more freedom of movement.

**Paragraph 6**

The French philosopher Auguste Comte once said that “demography is destiny,” and it was long believed that countries with growing populations thrive, while those with shrinking populations go into economic and social decline. It would seem, however, that this old calculation needs to be revised. If the Dutch campaigners have it right, the coming population decrease could, in fact, be great.

**단락 5**

인구 감소는 또한 성평등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주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의 인권과 평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많은 지역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들보다 교육과 고용 기회가 적다.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젊은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데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이다. 이민에 대해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오늘날 많은 정부들은 여전히 자국민을 선호하며 이민자들의 유입을 제한하려 한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정부는 더 많은 이동의 자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단락 6**

프랑스 철학자 오귀스트 콩트는 한때 "인구통계학이 운명이다"라고 말했고, 오랫동안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는 번영하는 반면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쇠퇴를 겪는다는 믿음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 오래된 계산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네덜란드 캠페인 주창자들의 말이 맞다면, 앞으로 다가올 인구 감소는 사실 위대한 것일 수 있다.

**Unit 11**

**Lesson 1 First Line of Defense**

**Paragraph 1**

Today, in research laboratories across the planet, scientists are working to better understand how diseases behave and how our bodies work by testing chemicals, drugs, and procedures on animals before they are used by or on humans. For some, animal research is a highly controversial practice, but empirical evidence proves that it does not happen without logic or purpose.

**Paragraph 2**

Let us begin by examining some of the practical reasons why humans use animals for research. First, animals’ internal systems often share similarities with our own: this includes respiratory, circulatory, digestive, nervous, and immune systems. Although science can do many things, these systems are not yet possible to simulate using artificial technologies. However, mice—the animal most often used for research—are a ninety-seven percent genetic match with humans. Furthermore, as most animals have short lives and reproduce quickly, we can study them throughout their lifespan and see the effects of treatments on their next generation.

**유닛 11**

**레슨 1 인류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

**단락 1**

오늘날 전 세계의 연구소에서 과학자들은 화학물질, 약물, 절차를 인간에게 사용하기 전에 동물에게 먼저 시험함으로써 질병의 행동 방식과 우리 몸의 작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부에게 동물 연구는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행이지만, 경험적 증거는 이것이 논리나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단락 2**

인간이 연구에 동물을 사용하는 실용적인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동물의 내부 시스템은 인간과 유사하다: 여기에는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신경계, 면역 시스템이 포함된다. 과학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들은 아직 인공 기술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연구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동물인 쥐는 인간과 97% 유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대부분의 동물은 수명이 짧고 빠르게 번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전체 수명 동안 연구할 수 있고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치료의 영향을 관찰할 수 있다.

**Paragraph 3**

Another consequence of sharing similarities is that diseases that occur in humans are also very common among animals. Dogs, for example, naturally suffer from cancer, cataracts, and ulcers (a common stomach complaint). Meanwhile, rabbits are vulnerable to many of the heart conditions that humans can develop, such as blocked arteries. Animals can also develop diseases like the flu, and as is well known, COVID-19 seems likely to have begun within bats. In fact, it was due to preliminary research using animals—including mice and monkeys—that scientists were able to develop a human vaccine for the COVID-19 virus so quickly.

**Paragraph 4**

Animals have also helped us to better understand our bodies and develop state-of-the-art medical procedures. Much of what we know about the mysteries of the human brain is a result of studying neurotransmitters in giant squid and tiny worms called nematodes. These studies have allowed us to expand our understanding of problems such as memory loss. In addition, operations for people that are considered common today were first performed on animals. Hip and knee replacement surgeries were first performed on animals in nineteenth-century Germany by Dr. Themistocles Gluck. In the 1950s, the first successful heart operations and transplants were carried out by US doctor John Gibbon—on dogs. Within a few years, Gibbon used what he had learned to save the life of an eighteen-year-old girl with a heart problem. She made a complete recovery and went on to live a long life.

**단락 3**

유사성을 공유하는 또 다른 결과는 인간에게 발생하는 질병이 동물에게도 매우 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는 자연적으로 암, 백내장, 궤양(흔한 위장 질환)을 앓는다. 한편, 토끼는 동맥 폐색과 같이 인간이 발병할 수 있는 많은 심장 질환에 취약하다. 동물도 독감과 같은 질병에 걸릴 수 있으며, 잘 알려진 대로 COVID-19는 박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쥐와 원숭이를 포함한 동물을 활용한 예비 연구 덕분에 과학자들은 COVID-19 백신을 그렇게 빨리 개발할 수 있었다.

**단락 4**

동물은 또한 우리 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최첨단 의료 절차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인간 뇌의 신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은 대형 오징어와 선충이라고 불리는 작은 벌레의 신경전달물질을 연구한 결과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억 상실과 같은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켰다. 또한, 오늘날 흔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위한 수술은 처음에 동물에게 수행되었다. 고관절과 무릎 치환 수술은 19세기 독일에서 테미스토클레스 글룩 박사에 의해 처음으로 동물에게 수행되었다. 1950년대에 미국 의사 존 기번은 개를 대상으로 최초의 성공적인 심장 수술과 이식을 수행했다. 이후 몇 년 만에 기번은 자신이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심장 문제가 있는 18세 소녀의 생명을 구했다.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어 오랜 삶을 살았다.

**Paragraph 5**

So, without question, animal research educates us and saves human lives, but does that necessarily make it right? To answer this, we need to examine some philosophical arguments about animal research. In 1975, Australian philosopher Peter Singer’s influential book *Animal Liberation* was one of the first to make the case against animal testing, painting it as cruel and unnecessary. Singer suggested that we should acknowledge animals as our equals. This point of view, however, leads to an interesting question regarding what is good or bad: would it be right to hurt or even kill one human to save one million human lives? Then, how about one animal? Those opposed to animal research often seem to avoid this difficult question.

**Paragraph 6**

Despite the lack of conclusive answers to animal testing’s ethical problems, many of the systems we have in place ensure that animal research is as limited and painless as possible. For example, in the UK and the EU, there is legislation that states that animals can only be used for research when it can be proven that there are absolutely no alternatives. Testing on isolated cells and tissues should always be considered first. When there are no other options, the animals being experimented on should be as small as possible: worms or flies, for example. And if it is thought that an animal might suffer, anesthetics are legally required.

**단락 5**

따라서 의심의 여지없이 동물 연구는 우리를 교육하고 인간의 생명을 구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옳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동물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철학적 논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5년, 호주 철학자 피터 싱어의 영향력 있는 저서 *동물 해방*은 동물 실험을 잔인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묘사하며 이에 반대하는 주장을 한 최초의 책 중 하나였다. 싱어는 우리가 동물을 우리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선과 악에 관한 흥미로운 질문으로 이어진다: 백만 명의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 명의 인간을 해치거나 심지어 죽이는 것이 옳을까? 그렇다면 한 마리의 동물은 어떨까? 동물 연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단락 6**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동물 실험이 제한적이고 고통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이 많이 구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영국과 EU에서는 절대적으로 대안이 없다는 것이 입증될 때만 동물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는 법률이 있다. 분리된 세포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른 선택이 없을 때는 실험 대상 동물은 가능한 한 작아야 한다. 예를 들어, 벌레나 파리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동물이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 법적으로 마취제가 요구된다

**Paragraph 7**

While it is a topic that people often respond to emotionally,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logic that informs animal research. As we have seen, it has a range of significant benefits, and humans do not experiment on animals simply because they can or because they enjoy it, but because to not do so would lead to greater, more long-term suffering.

**단락 7**

사람들이 종종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주제이지만, 동물 연구를 뒷받침하는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보았듯이, 동물 연구는 다양한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단순히 할 수 있거나 즐기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크고 장기적인 고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Unit 11**

**Lesson 2 A Case Against Animal Testing**

**Paragraph 1**

Each year, countless animals are experimented on worldwide. The Humane Society of the US estimates the annual number of animal test subjects in that country alone at over twenty-five million. Globally, the total is said to be more than one hundred million animals per year.

**Paragraph 2**

One of the main reasons such research occurs is the widely held opinion that animals are resources for human use. While most scientists oppose unnecessary animal cruelty, many maintain that animal testing is integral to the search for medical treatments that enhance the quality of human life.

**Paragraph 3**

In response, animal rights activists work to debunk the claims of the animal testing industry. They refute the arguments in favor of experimenting on animals and support the elimination of animal testing in all its forms. Let’s take a closer look at some of these animal testing myths and the arguments against them.

**유닛 11**

**레슨 2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이유**

**단락 1**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미국 내에서만 연간 2,500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실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 세계적으로는 연간 1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실험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락 2**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주된 이유는 동물이 인간의 사용을 위한 자원이라는 널리 퍼진 의견 때문이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불필요한 동물 학대에 반대하지만, 많은 이들은 동물실험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 치료법을 찾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단락 3**

이에 대응해 동물권 운동가들은 동물실험 산업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그들은 동물 실험을 지지하는 논거를 반박하고 모든 형태의 동물실험 폐지를 지지한다. 동물 실험에 대한 몇 가지 통념과 이에 반대하는 논거를 자세히 살펴보자.

**Paragraph 4**

Myth: Animals aren’t capable of human-like intelligence or pain. “Bird-brained” and “bovine” (which means of or relating to cows and similar animals) are terms we apply to unintelligent people. Yet, careful observation of animals should cause a rethinking of these expressions. Crows and ravens, which are common, fairly large black birds found around the world, are now known to use tools and even plan tasks ahead of time, something once believed to be unique to humans. Furthermore, cows are more mentally complex than most people think: they can solve mazes, and they experience emotional suffering when separated from their mothers.

**Paragraph 5**

Intelligence aside, the consensus in the scientific community is that animals can feel pain. When put in painful situations, mice and rats show expressions on their faces similar to those shown by humans in pain. In addition, animals display an increase in brain hormones and protective reactions and a loss of interest in food when exposed to painful stimuli.

**Paragraph 6**

Myth: Very few animals are harmed or killed. Let’s say that most animals being tested on are neither seriously hurt nor killed because of research protocols. Even if this is true, other aspects of the animal testing industry must be taken into account.

**단락 4**

오해: 동물은 인간처럼 지능이나 고통을 느낄 수 없다. “새 대가리” 또는 “소 같은" (소와 관련된) 표현은 지능이 낮은 사람을 비하할 때 사용된다. 하지만 동물들을 면밀히 관찰하면 이러한 표현을 재고해야 함을 알게 된다. 세계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교적 큰 검은색 새인 까마귀와 큰까마귀는 도구를 사용하고 일을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한때 인간만의 능력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게다가 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정신 세계를 지니고 있다: 소는 미로를 풀 수 있고, 어미와 분리될 때 정서적 고통을 경험한다.

**단락 5**

지능은 차치하더라도, 과학계의 합의는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쥐와 생쥐는 인간과 유사한 표정을 보인다. 또한 동물들은 고통스러운 자극에 노출되면 뇌 호르몬의 증가와 방어 반응을 보이고, 음식에 대한 관심을 잃는다.

**단락 6**

오해: 매우 적은 수의 동물만이 피해를 입거나 죽는다. 대부분의 실험 동물들이 연구 프로토콜로 인해 심각하게 다치거나 죽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동물 실험 산업의 다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Paragraph 7**

First, lab facilities are like prisons, where animals are kept in crowded cages and are exposed to various day-to-day stressors such as loud noises and bright lights. They are prevented from expressing their natural behaviors and interacting with other members of their species. These conditions create severe mental trauma, especially in primates. Investigations have revealed monkeys screaming, ripping out their hair, and running around in circles in laboratory environments.

**Paragraph 8**

Then there is the defense that government regulations protect animals from unethical testing practices. True, there are laws like the Animal Welfare Act in the US, but the protection they provide is limited. For instance, mice and rats are not covered under the Animal Welfare Act, and therefore, they do not receive the same safeguards of minimum cage size and transport. In fact, the federal government does not require mice and rats to be included in the annual count of animals used in research—a serious problem, considering that these species make up ninety percent of all animal test subjects.

**단락 7**

우선, 실험실 시설은 감옥과 같아 동물들은 비좁은 우리에 갇혀 있고 큰 소음과 밝은 빛 같은 다양한 일상적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이들은 본래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과 상호작용할 기회를 빼앗긴다. 이러한 조건은 특히 영장류에게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유발한다. 조사에 따르면 실험실 환경에서 원숭이들이 비명을 지르고, 털을 뽑아내며, 원을 그리며 계속 도는 행동이 목격되었다.

**단락 8**

그다음으로 정부 규제가 동물을 비윤리적인 실험 관행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주장이 있다. 맞다, 미국의 동물복지법과 같은 법률들이 있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보호는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쥐와 생쥐는 동물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최소한의 우리 크기와 운송에 대한 동일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실, 연방 정부는 쥐와 생쥐를 연구에 사용된 동물의 연간 집계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이들 종이 모든 동물 실험 대상의 9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다.

**Paragraph 9**

Myth: There are no suitable alternatives. Some scientists justify experimenting on animals by claiming that other research methods cannot produce useful enough results. However, there is evidence that animal testing itself is ineffective. In the US, for instance, ninety-two percent of medicines that have gone through animal testing fail in human trials. Moreover, human studies have produced a number of the most significant scientific findings. These include the link between smoking and cancer, the development of X-ray technology, and the discovery of the virus that causes AIDS.

**Paragraph 10**

Innovations in testing methods over the past few years are also proving to be very valuable, and there have been great improvements in research methods that use human cells or computer-modeling devices. In particular, Harvard University has created systems called Organs-on-Chips that behave like human body structures.

**Paragraph 11**

In brief, these options show that medical research can be done without animal testing. And given the speed of technological advances,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experimenting on animals becomes completely outdated. Therefore, why not act now and ban animal testing once and for all?

**단락 9**

오해: 적절한 대안이 없다. 일부 과학자들은 다른 연구 방법으로는 충분히 유용한 결과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동물 실험을 정당화한다. 하지만 동물 실험 자체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증거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동물 실험을 거친 약물 중 92%가 인간 대상 임상 시험에서 실패한다. 게다가 인간 연구는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발견들 중 다수를 생산했다. 여기에는 흡연과 암 사이의 연관성, X-ray 기술 개발,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발견 등이 포함된다.

**단락 10**

지난 몇 년간의 실험 방법 혁신도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인간 세포나 컴퓨터 모델링 장치를 사용하는 연구 방법에 큰 개선이 있었다. 특히 하버드 대학교는 인간 신체 구조처럼 작동하는 '장기칩' 시스템을 만들었다.

**단락 11**

간단히 말해, 이러한 선택지들은 의료 연구가 동물실험 없이도 수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동물 실험이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행동하여 동물실험을 영원히 금지하는 것은 어떨까?

**Unit 12**

**Lesson 1 Buy Locally?**

**Paragraph 1**

Just yesterday, I was lost and came across a local farmers’ market. I’d forgotten that this market takes place every week, so I spent a bit of time wandering around and taking in the sights and the smells of fresh fruits and vegetables.

**Paragraph 2**

While there, I started talking with another shopper and suggested that I could buy fresh foods of similar quality at a supermarket for much less money. She assured me that the tomato I was squeezing was the best purchase I could ever make. I’d be supporting local farmers as well as helping the environment. And, with a flash of anger in her eyes, she said that I wouldn’t be “enriching the evil corporate agricultural machine.” Seriously—she actually said that. I set the tomato down and backed away slowly.

**Paragraph 3**

It’s easy to believe that buying locally produced food is better than buying food at a supermarket. But I left the market that day feeling that a bit of research was needed.

**유닛 12**

**레슨 1 로컬 식품 구매가 정말 좋은 선택일까?**

**단락 1**

바로 어제, 길을 잃었다가 우연히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발견했다. 매주 이 장터가 열린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기에,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주는 풍경과 향기를 즐기며 잠시 둘러보았다.

**단락 2**

그곳에서 다른 쇼핑객과 대화를 나누다가 나는 비슷한 품질의 신선한 식품을 슈퍼마켓에서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만지고 있는 토마토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구매라고 확신시켰다. 지역 농부들을 지원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눈빛에 분노를 담아 “악랄한 기업형 농업 기계를 배불리는 일은 아니잖아요"라고 말했다. 정말로 - 그녀가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 나는 토마토를 내려놓고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단락 3**

역에서 생산된 음식을 구매하는 것이 슈퍼마켓에서 음식을 사는 것보다 낫다고 믿기 쉽다. 하지만 그날 장터를 떠나면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Paragraph 4**

Certain problems became clear immediately; first, there’s no solid definition of “local” when talking about a food’s origin. The idea of eating local is so appealing to some people that one enthusiastic eater even came up with the term “locavore” to describe someone who only eats food grown within a set radius around the eater’s home. But what distance are we talking about? It could be a 250-mile or even 500-mile radius. There’s no real way to determine when it stops being “local” and starts being “imported.”

**Paragraph 5**

In an article titled “The Inefficiency of Local Food,” Steve Sexton creates a theoretical world in which all food production is local. In this system, food producers grow a share of food proportional to their state’s population rather than mass-producing a crop to export elsewhere. To start, these farmers would need to obtain more farmland. After the land has been cleared, the crops would need to be treated with fertilizer and chemicals. Then they would have to be gathered, moved to a distributor, and finally transported to stores. According to Sexton’s estimates, a local system would require 60 million additional acres of farmland, 2.7 million more tons of fertilizer, and 50 million more pounds of chemicals compared to our current systems. The environmental impact would be devastating.

**단락 4**

몇 가지 문제점이 즉시 분명해졌다. 첫째, 식품 원산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역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지역 식품을 먹는 아이디어가 일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열정적인 한 식도락가는 심지어 먹는 사람의 집 주변 특정 반경 내에서 자란 음식만 먹는 사람을 지칭하는 "로컬보어(locavore)"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거리는 얼마일까? 250마일이나 심지어 500마일 반경일 수도 있다. 어디까지가 “지역산”이고, 어디서부터 “수입산”인지 명확하게 결정할 방법이 없다.

**단락 5**

"지역 식품의 비효율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스티브 섹스턴은 모든 식품 생산이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상의 세계를 만들었다. 이 시스템에서 식품 생산자들은 다른 곳으로 수출하기 위해 대량 생산하는 대신 자신의 주 인구에 비례하는 식품 비율을 재배한다. 우선, 이러한 농부들은 더 많은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토지가 개간된 후에는 작물에 비료와 화학물질을 처리해야 한다. 그런 다음 수확하고, 유통업체로 운반하고, 최종적으로 상점으로 운송해야 한다. 섹스턴의 추정에 따르면, 지역 시스템은 현재 시스템과 비교하여 6천만 에이커의 추가 농지, 270만 톤의 추가 비료, 5천만 파운드의 추가 화학물질이 필요할 것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참혹할 것이다.

**Paragraph 6**

While supporters of locally grown food argue that transporting food long distances increases carbon emissions, Dr. Alexander Kasterine of the International Trade Centre suggests the opposite. For example, you can grow pineapples and mangoes in hothouses in the UK. But farms in England, as it turns out, use more energy in their food production than do farmers in Africa, who rely on machinery less and more on manual labor. Transit from Africa actually results in lower carbon emissions than growing the food at home would. On top of that, deliberately avoiding the agricultural output of developing nations would be unfair to the farmers in those countries. The solution, Dr. Kasterine says, is not to grow locally and cut off the food supply from overseas but to focus on reducing carbon emissions at home.

**단락 6**

지역 농산물 지지자들은 장거리 식품 운송이 탄소 배출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지만, 국제무역센터의 알렉산더 카스테린 박사는 그 반대를 제안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온실에서 파인애플과 망고를 재배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농장은 기계 사용을 덜하고 수작업에 더 의존하는 아프리카 농부들보다 식품 생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아프리카에서의 운송은 실제로 집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탄소 배출량이 더 낮다. 게다가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농부들에게 불공평할 것이다. 카스테린 박사는 해결책이 지역에서 재배하고 해외 식품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Paragraph 7**

What about growing your own food? Community gardens are multiplying in urban areas thanks to political initiatives, but I was surprised to find out that even growing your own vegetables doesn’t have as positive an impact as you’d think. In places like New York City, where space is already scarce and expensive, putting aside acres of land for planting a few vegetables instead of developing housing forces more people to live outside city limits and travel to work by car. Thus, sustaining a dense population within a small area, where people can walk and take public transportation, probably does more good for the environment than planting a few rows of squash does.

**Paragraph 8**

We are thus faced with a dilemma. Vast quantities of fossil fuels are consumed whether we ship our fruits and vegetables from another continent or grow them in empty city lots or small farms outside of town. But if you examine the numbers, the lesser of these two evils becomes apparent—shipping in food is our best, if less than perfect, choice in the long run.

**단락 7**

그렇다면 자급자족은 어떨까? 정치적 지원 덕분에 도시 지역의 커뮤니티 정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집에서 채소를 기르는 것이 생각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놀랐다. 뉴욕시와 같이 이미 공간이 부족하고 땅값이 비싼 곳에서는 몇 가지 채소를 재배하기 위해 몇 에이커의 토지를 주택 개발 대신 사용하는 것이, 사람들이 도시 외곽에 거주하며 차를 이용해 출근하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걸어서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지역 내에서 밀집된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호박 몇 줄을 심는 것보다 환경에 더 이로울 수 있다.

**단락 8**

우리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과일과 채소를 다른 대륙에서 운송하든 도시 빈 공터나 도시 외곽의 소규모 농장에서 재배하든 엄청난 양의 화석 연료가 소비된다. 하지만 숫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악 중 덜한 것이 분명해진다—장기적으로 볼 때 식품 운송이 우리의 최선책이자,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장 좋은 선택이다.

**Unit 12**

**Lesson 2 The Case for Local Food**

**Paragraph 1**

The foundation of human civilization was agriculture, which began in the Neolithic period between 7,000 and 10,000 years ago. Growing food rather than hunting and foraging altered the way that humans lived, as it meant that they were able to settle permanently in one place, spend time improving other things necessary for life, and expand their societies. Farming today remains at the center of human civilization and sustains life on Earth as we know it. Unfortunately, certain modern farming practices may also be simultaneously destroying life on Earth as we know it.

**Paragraph 2**

This sounds like a paradox, but the fact is that agriculture is now big business. According to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t is one of the top five economic sectors in term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Giant corporations have established industrial farms all around the world. They grow the most profitable crops and send them as far as necessary to make as much money as possible. Some nations are heavily dependent on the cultivation and export of certain crops—for example, corn in the US or bananas and mangoes in the Philippines. Because these crops are grown on massive farms and shipped far and wide, an enormous amount of fuel is burned in the process.

**유닛 12**

**레슨 2 지역 농산물의 가치**

**단락 1**

인류 문명의 기반은 농업으로, 이는 7,000년에서 1만 년 전 신석기 시대에 시작되었다. 사냥과 채집 대신 식량을 재배하는 것은 인간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한 장소에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고, 삶에 필요한 다른 것들을 개선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었으며, 사회를 확장할 수 있었다. 오늘날 농업은 여전히 인류 문명의 중심에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 농업의 일부 관행은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을 수도 있다.

**단락 2**

이것은 역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현대 농업은 대규모 사업이 되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농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상위 5개 경제 부문 중 하나다. 거대한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 산업형 농장을 세웠다. 이들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재배해 가능한 먼 거리까지 운송하여 최대한 많은 이윤을 얻는다. 일부 국가들은 특정 작물의 재배와 수출에 크게 의존한다 - 예를 들어 미국의 옥수수, 필리핀의 바나나와 망고가 그렇다. 이러한 작물들이 대규모 농장에서 재배되고 멀리 운송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연료가 소비된다.

**Paragraph 3**

Another problem with industrial farming is the spread of illnesses. People need to be very careful about what they put into their bodies, and the health problems caused by modern agriculture have multiple layers. It is difficult to ensure that every single food item meets the safety standards expected by regulators and consumers on large factory farms. Hence, cases of food poisoning are quite common. Just as importantly, what is permissible in one place may not be in another. Even if farms attempt to follow regulations regarding which chemicals they can and cannot use for exported food, a nearby farm growing crops for the domestic market may not follow the same standards, and contaminants can travel from place to place.

**Paragraph 4**

Moreover, as animals, plants, and humans all come in greater contact with each other, zoonotic diseases such as Creutzfeldt-Jakob disease (a variant of mad cow disease), swine flu, and coronaviruses become more widespread and dangerous. The human immune system is not prepared to deal with these illnesses. We also don’t fully understand the long-term effects that efforts to combat these diseases, such as antibiotics and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will have on humans and the environment.

**단락 3**

산업형 농업의 또 다른 문제는 질병의 확산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무엇을 넣는지 매우 주의해야 하며, 현대 농업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대규모 공장식 농장에서는 모든 식품이 규제 당국과 소비자가 기대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식중독 사례는 비교적 흔히 발생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 장소에서 허용되는 것이 다른 곳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수출용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정을 농장이 따르려 해도, 국내 시장용 작물을 재배하는 인근 농장은 동일한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오염물질은 장소 간 이동할 수 있다.

**단락 4**

게다가 동물, 식물, 인간이 서로 더 많이 접촉함에 따라 크로이츠펠트-야콥병(광우병의 변종), 돼지독감,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이 더욱 광범위해지고 위험해진다. 인간의 면역 체계는 이러한 질병들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항생제와 유전자 변형 유기체와 같은 질병 퇴치 노력이 인간과 환경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Paragraph 5**

Fortunately, all of these problems can be mitigated by keeping agriculture small-scale and local. Because it spends less time in transit, locally grown food requires less energy, thus reducing emissions. Food that doesn’t have to be shipped long distances also arrives at its destination fresher. It contains more nutrients, and less of it is lost to being spoiled. Moreover, small farms are usually family-owned and are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farmers thus feel a great sense of responsibility to take proper care of their land, livestock, and other resources. Research has shown that small farms use better soil and water conservation practices and fewer chemicals than “agribusiness” does.

**Paragraph 6**

In addition to being better for the planet and our health, locally sourced food has significant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From the farmers who grow it to the people who transport it, to the people who sell it, to those who buy and eat it, the whole economic supply chain is kept inside the community. This creates jobs and allows family-owned farms to stay in business. Since consumers can buy their food directly from the people who grew it, locally sourced food fosters relationships among farmers and neighbors.

**단락 5**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들은 농업을 소규모화하고 지역화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 운송 시간이 적게 소요되므로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은 에너지 소비가 적어 배출량을 줄인다. 장거리 운송이 필요 없는 식품은 더 신선하게 목적지에 도달한다. 더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부패로 인한 손실이 적다. 또한 소규모 농장은 대개 가족 단위로 운영되며, 대대로 이어진다. 농부들은 자신의 토지, 가축, 자원을 올바르게 관리해야 한다는 큰 책임감을 느낀다. 연구에 따르면, 소규모 농장은 "농업기업"보다 더 나은 토양 및 물 보전 관행을 실천하며 화학물질도 적게 사용한다.

**단락 6**

지역 농산물은 환경, 건강에 이로운 점 외에도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이점을 제공한다. 재배하는 농부부터 운반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구매하고 먹는 사람까지 전체 경제 공급망이 지역사회 내에 머무른다. 이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족 농장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들이 식품을 직접 재배한 사람들로부터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은 농부와 이웃들 간의 관계를 증진시킨다.

**Paragraph 7**

Whether your reasons for doing so are environmental, economic, social, or health-related, buying locally grown food is clearly the superior choice. While it may not be reasonable to ask people and institutions to buy exclusively from local producers, a conscious effort to do so as much as possible could go a very long way.

**단락 7**

이유가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혹은 건강 관련된 것이든,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은 분명히 더 나은 선택이다. 사람들이나 기관들에게 지역 생산자들에게서만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